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8월
석사학위논문

국문본 「동선기」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 영 결

국문본 「동선기」 연구

A Study on the Dongseongi in Korean

2023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 영 결

국문본 「동선기」 연구

지도교수 엄태식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 영 결

강영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이상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 교 수 박종훈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 교 수 엄태식 (인)

2023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Ⅲ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	5
II. 국문본 「동선기」의 서지와 경개	7
1. 국문본 「동선기」의 서지 사항	7
2. 국문본 「동선기」의 경개 및 한문본과의 비교	9
1) 한문본·국문필사본·국문활자본의 경개	9
2) 한문본·국문필사본·국문활자본의 차이점	16
III. 국문본 「동선기」의 번역과 개작	28
1. 국문본 「동선기」의 번역 양상	28
2. 국문본 「동선기」의 개작	33
3. 조선 후기 소설의 영향	42
IV. 국문본 「동선기」의 서사적 특징	47

V. 결론 49

참고 문헌 51

ABSTRACT

A Study on the Dongseongi in Korean

JIANG, YINGJIE

Advisor : prof. Eom Taesik,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based on the analysis of Chinese 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handwriting version and the Korean typographic version, and next. Meanwhile,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of the Korean text 「Dongseongi」are examined.

First of all, the bibliography and introduction of the two versions of the Korean text—the handwritten version and the typographic version—are examined. Based on analysis of the Chinese text, the comparison of content differences of the three copies is provided.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Korean handwritten version is a valuable copy while the typographic version was translated and modified based on the Chinese text. It is confirmed that the Korean handwritten version is the Nakjilbon, and the Korean typographic version was abbreviated by using the author of Korean handwritten version Therefore, the paper focuses on Korean writing capital from the aspects of translation and adaptation. As a result, the Korean text can first be translated again based on the Chinese text and the modified work can be confirmed, which is more different from the Chinese text than the Korean text. By comparing the Chinese and Korean text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odifier of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 did not accurately translate the entire text and vocabulary contained in the Chinese text. In

addition, in the Korean text, it was translated and adapted by briefly referring to the full text and vocabulary of the Chinese text.

Then, In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 the influence of nove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detected. In addition,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narratives and the setting of characters in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 which was created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Chunhyangjeon created in the early 18th century. For example, in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 the three people, Seolyeong, Gyeonggyeong, and Dongseon, correspond to Guunmong that Guseomwol, Manokyeon, and Jeokgyeonghong are Cheongru Samjeol. In addi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description of Dojuksan Mountain in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 adopts the contents of Chongnamsan Mountain in Guunmong. Alternatively, the places where Seo Moon-jeok lives in Yoo, So-jeo, and Dong-seon after the ceremony are set up as Oksundang, Byeolundang, and Chimhyanggak, respectively, taking the contents of 「Guunmong」.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 it can be confirmed that Chunhyang was threatened by Byun Hak-do in Chunhyangjeon. And in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 the former name is "Chungbulsaignun" in order to emphasize Seolyeong and Sujeol. This is what Chunhyang says to Byun Hak-do in 「Chunhyangjeon」 by saying the word Yeolbulsaisu.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Dongseon as Mrs. 「Chungnyeong」 were also referred to in 「Chunhyangjeon」.

Lastly, the paper mainly investigates on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ersion of 「Dongseongi」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novel. As a result, the readership changed along with the translation process of the Korean version of Chinese biographical novels while many literature with high literary tastes such as classics and poems on biographical novels were deleted, and the original tragic ending was turned into a happy ending. Moreover, it is confirmed that the contents of various novels were referenc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and distributing them in Korean with a change that female readers and lower-class readers were in consideration.

I. 서론

1. 문제제기

한국 고전소설은 17세기에 접어들어 16세기에 창작된 소설과 다르게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소설은 점점 장편화되었고, 새로운 형식으로 창작된 소설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복선의 활용 같은 서사 기법이 발달하였다.¹⁾ 이렇게 새로운 형식이 나타남과 동시에 국문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원작인 한문본을 번역하거나 개작한 국문본 소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문본 「동선기(洞仙記)」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동선기」는 17세기에 창작된 한문소설로, 작가 미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은 송나라 정강(靖康) 연간에 주인공 서문적(西門勳)이 동선(洞仙)이란 기생과 사랑한 이야기이다. 서문적(西門勳)은 전생(前生)에 옥동(玉洞)의 신선(神仙) 여동빈(呂洞濱)이었으며, 동선(洞仙)은 전생(前生)에 옥동(玉洞)의 선녀(仙女)였다. 두 사람은 지상으로 적강하게 되어 만나고 사랑을 이루지만, 여러 차례 고난을 여러 차례로 겪은 후에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동선기」는 다수의 이본들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동선기」 이본은 크게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문본 「동선기」는 총 9종이 확인되는데, 국도관가본, 국도관나본, 김기동본, 하버드대본, 화몽집본[김일성대본], 천리대본, 성암고서박물관본, 박현규본 그리고 경북대본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성암고서박물관본과 박현규본의 경우에는 현재 원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²⁾

국문본 「동선기」의 이본 현황은 현재까지 국문활자본과 국문필사본 두 종류가 소개되어 있다. 국문활자본 「동선기」는 1913년에 신구서림에서 출판한 활자본이 유일본이지만 현재 그 실물은 확인할 수 없고, 소재영·민병삼·김호근이 편찬한 『한국의 딱지본』에서 그 표지만 볼 수 있다.³⁾ 그리고 그 후에 국문활자본 「동선기」를 김기동이 소개하였으나, 그가 편찬한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등에도 영인되지 않았고, 나중에 김기동·전규태가 현대어 표기로 고쳐 간행한 『동선기·배시황전·옥소기연』을 통해 「동선기」가 총 24회의 장

1) 정길수, 『17세기 한국 소설사』, 알렙, 2017, 11~12면.

2) 엄태식, 「국문필사본 동선기 연구」, 『고전과 해석』 25,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3) 소재영·민병삼·김호근 편, 『한국의 딱지본』, 범우사, 1996, 83면.

회제 소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동선기·배시황전·옥소기연』의 머릿말에 적혀 있는 “우리는 현존하는 모든 고전소설을 현대 철자법으로 개편하되 원문에 충실하여 學的 價値가 있도록 하였다”⁴⁾라는 말을 통해 신구서림에 실렸던 「동선기」를 번역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국문필사본 「동선기」의 경우는 이종철이 소장하고 있었던 이본으로 현재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본(零本)으로, 원래 3권 3책이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2권 제2책밖에 없다. 총 84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운데 한 면이 찢겨 나가 83면만 남아 있다. 그리고 두 이본의 서사구조와 줄거리를 보면, 한문본을 모태로 삼은 번역본이기도 하고 개작본이기도 하다.⁵⁾

지금까지는 「동선기」의 이본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국문본 「동선기」에 관한 고찰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문본 「동선기」는 한문본을 직역한 것이 아니라 개작본이므로 선행 연구에서는 그다지 가치 있는 자료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작본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던 국문본을 가지고 한문본과의 비교, 나아가 국문본의 두 이본 간에 존재하는 번역 양상 및 개작 양상 등에 관한 해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국문본 「동선기」의 서지사향과 경계를 살피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국문본과 한문본의 경계를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두 국문본과 한문본의 차이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기초하여 국문본 「동선기」의 두 이본의 번역과 개작 양상을 살펴보고, 마지막에서 국문본 「동선기」의 서사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를 분석하겠다.

2. 연구사 검토

「동선기(洞仙記)」가 최초로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39년에 김태준이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와 관계가 있다고 하여 김만중 창작설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 그는 “南征記라는名稱은 作者未詳한 洞仙記의 ‘記’와도 같다. 洞仙記는 西門勳과 洞仙과의 情事를 기록한 것으로 내용에 두 사람의 往復書信의 많고 이 作者가 病母를 慰勞코저 하로밤에 지었다고 전하는 말도 있는 것으로 보아 또한 西浦의 著이 아닌가 疑心한다.”⁶⁾라고 하였다.

4) 김기동·전규태 편, 『동선기·배시황전·옥소기연』 서문당, 1984, 8면.

5) 엄태식, 앞의 논문, 151면.

이후에 김춘택은 「동선기」가 수록된 『화몽집』의 앞머리에 “略舉其概時天啟六”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은 근거로 삼아, 이 소설의 창작 시기가 1626년 이전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 그러나 소인호가 2005년에 『화몽집』의 17세기 창작설을 부인한 후⁸⁾, 근래 와서 「동선기」의 창작 시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기동은 『한국고전소설연구』에서 ‘이 작품은 현재 國立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漢文本으로 兩本이 있다. 兩本中 하나는 53面으로 筆寫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78면으로 筆寫되어 있으나, 內容은 同一하다. 活字本으로 1913年 10월에 나온 新舊書林版(pp.97)은 國文本’이라 소개하고 경계를 검토하였다. 이 작품은 기녀가 숭고적이고 희생적인 애정을 가장 눈에 띄어 왔고, 한문으로 쓴 ‘英英傳·周生傳·崔陟傳’등과 같은 16세기에 창작한 소설이라고 추정하였다.⁹⁾

문범두는 「동선기」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여 애정소설로 분류하였다. 여주인공의 숭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적실하게 표현한 작품이라 주장하여 「동선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작품의 형성 배경과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 현실 부정적 사고방식이 전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으며, 작품 안에 나타나는 지명, 인명, 표제를 근거하여 도교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¹⁰⁾

권도경은 「동선기」가 17세기 애정류 전기소설의 관습을 계승하면서 많은 변모가 이루어진 작품이라 하였다. 이계의 성격 변모는 작품에서 ‘여주인공의 새로운 형상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동선기」의 서사가 현실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초월계로 확대되어 있고, 비현실적 사건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비현실성’의 관계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¹¹⁾

김재수는 「동선기 연구 I」에서 「동선기」가 1626년 이전에 편찬된 애정소설로 조선 초기 소설사 연구에 교량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동선기」가 중국에서 전승해온 『동선전(洞仙傳)』을 근거하여 중국의 도선사상에 연원을 두었다고 하였다.¹²⁾ 이어서 「동선기 연구 II」를 통해 작품의 형식적 특징과 구조를 밝혔다. 「동선기」는 동선의 적강으로 인해 갈등이 유발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적강 모티프를 가진 모든 작품의 갈등 구조를

6)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23면.

7) 김춘택, 『우리나라 고전소설사』, 한길사, 1993, 239~257면.

8) 소인호, 『한국고전소설연구』, 집문당, 2005, 208~210면.

9)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189~193면.

10) 문범두, 「동선기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7, 1~110면.

11) 권도경, 「동선기 연구」 『이화어문논집』 18, 이화어문학회, 2000, 49~70면.

12) 김재수, 「동선기 연구 I」, 『한국언어문학』 33, 한국언어학회, 1994, 125~142면.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수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¹³⁾

소재영은 「동선기를 통해 본 17세기 소설의 변모 양상」을 통해 「동선기」가 17세기 소설이라고 보았다. 가족들의 이산, 영웅 출현의 소망, 전란과 같은 비판적 시각을 담았다고 하였으며, 이 작품이 출현한 17세기를 계기로, 초기소설의 전기적 특징에서 벗어나, 현실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려는 사실주의적 변화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¹⁴⁾

소재영은 「동선기 연구」에서 1913년에 신구서림에서 나온 24회 장회체로 된 국문본을 바탕으로 하여 한문본과 비교하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작품 중에 인물의 갈등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문본이 개작본임을 지적하였다.¹⁵⁾

신상필은 「동선기 연구」에서 이 시기 전기소설의 변모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선기>는 17세기 전기소설의 변모 양상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16~17세기에 창작된 성과를 받아 이후의 소설사의 전개에 교량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소설사에서의 위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박현규는 「동선기의 이본 실태와 사상구조」를 통해 주로 이본, 작자, 창작 시기, 사상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동선기」를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나누고, 국문본과 한문본을 비교하였다. 그는 국문본의 세부 내용은 한문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⁷⁾

정환국은 「동선기」의 서사의 흐름이 전반부의 결연-중반부의 현실적 맥락과 치열한 갈등-후반부의 비현실적 결구라는 체계를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작품이 애정소설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17세기 전반 애정류 한문소설과 17세기 중반 이후 발흥한 국문 장편소설과의 거리 좁히기라고 하면서 이 작품이 바로 소설사의 흐름에 유념하여 창작된 특징도 갖고 있다고 하였다.¹⁸⁾

양승민은 「동선기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에서 본원적 작품세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고, 17세기 전기소설을 문헌체이면서도 이전 시기의 것들과 달리 국문소설의 양

13) 김재수, 「동선기 연구 II」, 『논문집』 35, 광주교육대학교, 1994, 111~134면.

14) 소재영, 「동선기를 통해 본 17세기 소설의 변모 양상」, 『어문논집』 3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6, 170~189면.

15) 소재영, 앞의 논문, 45~72면.

16) 신상필, 「동선기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8, 1~73면.

17) 박현규, 「동선기의 이본실태와 사상구조」, 『순천향어문논집』 6, 순천향어문학회, 2000, 57~81면.

18) 정환국, 「동선기의 지향과 소설사적 위상」, 『대동한문학』 14, 대동한문학회, 2001, 345~372면.

식적 전이를 일으킬 만한 통속적 성향을 다분히 띠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¹⁹⁾ 소설사의 ‘통속화’에 조응한 측면이 대단히 강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의승은 「경북대본 동선기 해제 및 원문」에서 경북대본의 서지 사항을 자세하게 제시해 놓았는데, 작품이 매면 8행 25자 내외에 총 85면으로 구성된 1책의 한문 현토 필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기존 이본에서 유일한 어휘나 구절과 문장으로 존재했던 것들을 경북대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전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았고 어휘나 구절, 문장 등을 줄여 쓰거나 생략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어조사 등을 문투에 따라서 생략하거나 첨입, 교체를 한 부분이 자주 발견되었고 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필사자에 의해서 오기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²⁰⁾

엄태식에 의해 이종철 소장 필사본 「동선기」가 소개되었다. 원래는 3권 3책이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2권 제2책으로 분량은 42장[84면]인데, 중간에 한 면이 찢겨 나갔고 필사 연도는 1890년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국문필사본 「동선기」는 국문활자본 「동선기」보다 내용이 풍부하며, 한문본과의 친연성도 크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국문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국문활자본이 간행되었으며, 국문활자본은 상업적 출판의 과정에서 축약된 개작본이라 하였다.²¹⁾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대개 한문본 「동선기」만을 주목하여 작품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 가운데에 국문본 「동선기」에 관한 연구가 있긴 있지만, 그다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문본보다 국문본 「동선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한문본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문본 「동선기」의 서사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까지 확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문본 「동선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별로 없었고,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다. 즉 기존에 「동선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다

19) 양승민, 「동선기의 작품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2001, 201~236면.

20) 한의승, 「경북대본 동선기 해제 및 원문」, 『동방학』 2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323~369면.

21) 엄태식, 앞의 논문, 129~152면.

한문본을 바탕으로 연구한 것이고, 국문본으로 연구한 것이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는 국문본 「동선기」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문본 「동선기」의 두 가지 이본인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의 내용상 차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가 존재한 이유를 먼저 분석하기로 한다. 이어서 국문본 「동선기」가 조선 후기 소설사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인지에 대해 섬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장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문본 「동선기」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제2장에서 국문본 「동선기」 두 이본의 서지 사항을 살피고, 한문본과 국문본의 서사 단락을 모두 정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문본, 국문필사본, 국문활자본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따라서 국문본 「동선기」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개작되어 있는지에 관한 양상을 세부적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국문본 「동선기」의 개작에 조선 후기 소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겠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앞 장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문본 「동선기」의 서사적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을 논하도록 하겠다.²²⁾

22) 본고에서 참고한 한문본은 엄태식이 편찬한 『동선기 역주 및 전고 연구』이고,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의 경우에는 각각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이종철 소장본, 소재영 김기동·전규태 편찬한 『동선기·배시황전·옥소기연』을 참고하기로 하였다. 인용할 때에는 예를 들면(한문본, 면.)(국문필사본, 면.)(국문활자본, 면.)으로 예시할 것이다.

Ⅱ. 국문본 「동선기」의 서지와 경개

여기에서는 먼저 국문본 두 이본에 관한 서지와 경개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국문필사본이 원래 3권 3책으로 있었으나 현재 제2권 제2책만 확인할 수 있고, 국문활자본과의 내용도 유사하기 때문에 먼저 국문활자본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국문필사본의 내용을 정리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문본과 국문본 두 이본에 관한 경개만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에 국문본의 두 이본과 한문본 간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1. 국문본 「동선기」의 서지 사항

국문본의 경우는 두 이본이 알려져 있다. 국문필사본은 서문당에서 현대어 표기로 바꾸어 출간한 장회체 소설이고, 국문필사본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자료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종철 소장본이다.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문활자본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는 한문본을 번역하고 개작한 소설이다. 1913년 10월에 간행된 국문활자본 소설로 24회체 장회체 소설이라 한다.²³⁾ 이는 소재영·민병삼·김호근이 편찬한 『한국의 딱지본』에 실려 있는 「동선화」의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 이본은 현재까지 실물은 확인할 수 없고 복사본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후에 김기동과 전규태가 현대어로 편찬한 『동선기·배시황전·옥소기연』에 수록하였는데, 그 책머리에 실려 있는 “우리는 현존하는 모든 고전소설을 현대 철자법으로 개편하되 원문에 충실하여 學的 價値가 있도록 하였고, 漢文小說은 번역하여 수록했으며”라는 말을 통해 본 작품은 국문활자본 「동선기」의 고어 표기를 현대어로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²⁵⁾

국문활자본은 앞부분 내용은 거의 한문본과 유사하지만 작품의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 결말까지는 한문본 내용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국문활

23) 소재영, 앞의 논문, 47면.

24) 소재영·민병삼·김호근, 『한국의 딱지본』, 범우사, 1996, 83면.

25) 김기동 전규태 편, 『동선기·배시황전·옥소기연』, 서문당본, 1985, 8면.

자본은 한문본의 번역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작본이기도 한데, 사실상 같은 작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작품 안에 전고(典故)·서신(書信)·시(詩) 등을 인용한 것이 한문본 만큼 비중이 크지 않는데, 번역자 혹은 개작자의 한문학적 지식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문필사본의 서지사항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대에 민간 자료를 조사하다가 발견하였다. 현재까지 그 이미지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서 작품의 크기나 지질 등은 확인할 수 없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자료관의 청구번호는 ‘MF A지수275’로 되어 있다. 소장자는 ‘대전 동구 이종철’이라고 한다.²⁶⁾

국문필사본은 작품의 겉표지가 매우 낡아 보인다. 그리고 겉표지 가운데 실려 있는 ‘경인 오월’이라는 글씨를 통해 필사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데, 종이가 찢어진 상태를 통해 한지(韓紙)로 추측할 수 있어 ‘경인년’은 1950년보다는 1890년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국문필사본은 책의 겉표지 하단 오른쪽에 ‘共三’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다. 이에 작품은 원래 3권 3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겉표지에 은은하게 ‘洞仙記’라는 한자로 적어 있고 왼쪽에 ‘동선기’가 적혀 있다. 매면에 11행 25자 내외에 총 42장 84면이 있는데 제16면이 찢겨 나갔다. 그리고 본문부터 시작하여 작품의 제7면~제8면 중간 부분까지 필체가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제35면~제36면까지의 필체는 제7면~제8면의 필체가 같아 보인다. 또 제65면~제66면의 필체는 앞부분의 제7면~제8면, 제35면~제36면의 필체와 같다. 국문필사본의 필사자는 2명 이상이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국문필사본의 내용을 국문활자본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국문활자본의 제11회~제18회, 서문당본을 기준으로 하여 제58면~제101면까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문활자본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국문활자본이 장회체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문필사본의 제2권 제2책 마지막 내용을 보면 “아참의 삼인이 가치 부인게 문안헌디 시로이 스랑ㅎ미 친여와 달음이 읍들라”라는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 구절은 동선이 유부인과 소참정 부인에게 아침에 문안을 올리는 내용인데, 마무리하는 장면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한문본에 있는 내용 중 국문필사본에만 존재하고 국문활자본에는 보이지 않는 대목이 존재한다. 한문본에는 ‘호손달희’라는 부정적 인물이 있는데, 이는 국문필사본에는 ‘달’이라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26) 엄태식, 앞의 논문, 133~137면.

국문활자본에는 이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문활자본을 간행하면서 이 내용이 없어도 된다고 느껴 삭제했을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특히 뒷부분을 보면 국문본 두 이본이 한문본과 비교해서 서사를 보면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듯 크게 변경되어 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문본은 국문필사본과 더 가깝다고 느껴지며 국문활자본과의 거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국문본 「동선기」의 경계 및 한문본과의 비교

1) 한문본·국문활자본·국문필사본의 경계

한문본의 서사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송나라 정강(靖康) 연간 변경(汴京) 만세산(萬歲山) 아래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서문(西門)이고 이름 적(勤)이라 한다. 옛날 항주자사(杭州刺史) 서문감(西門闕)의 후손이었다. 서문적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최부인(崔夫人)께 가르침을 받고 명성도 높아졌다. 일찍이 산동 유씨(劉氏)와 결혼하였다.
- ② 모친 최부인이 서문적에게 남자로서 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권유하였으나 답답한 마음에 서문적 친구인 장만부(張萬夫)·최심(崔諗)과 만나 유람하기로 약속했다.
- ③ 양주에 이르러 양자서당을 찾던 도중에 설영(雪英)이라는 기녀와 십여 일을 지냈다.
- ④ 소주(蘇州)에 이르러, 다시 경경(瓊瓊)이라는 기녀와 인연을 맺고서 떠났다.
- ⑤ 항주에 이르러 우연히 초대(楚臺)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녀의 나이 스물이었으며, 「동선사」를 잘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선(洞仙)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 ⑥ 서문적이 동선과 꿈을 통해 삼생 인연을 맺는 것을 알고 둘이서 사랑을 맺었다.

- ⑦ 동선이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는 서문적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권유하였다.
- ⑧ 고향에 돌아온 서문적은 여진(女眞)이 침략하였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동명도(東溟島)로 들어가 숨었다.
- ⑨ 한편 서문적 소식이 없자 동선은 선무사가 문무전재(文武全才)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북을 하고 순무진(巡撫陣)에 들어가서 서문적을 천거하였다.
- ⑩ 군중에 들어간 서문적이 일을 잘하여 선무사가 상객(上客)으로 삼아 안기의 신분보다 더 높아지자, 안기가 시기하였다.
- ⑪ 안기가 거짓으로 서문적을 모함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사자에게 바쳤고 서문적은 연경 옥에 갇히게 되었다.
- ⑫ 동선은 안기의 수청 명령을 편지를 통해 거절하였다.
- ⑬ 동명도에 있는 서문적 가족들이 항주에 있는 동선의 편지를 받고서 서문적이 연경 옥에 갇힌 것을 알게 되었다.
- ⑭ 안기가 가짜로 서문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위조하였으므로 최부인이 충격을 받아 죽었다. 동선은 서문적이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동명도로 갔다.
- ⑮ 얼마 후 동명도에 있는 동선이 안기가 돌아오라는 안기의 편지를 받고 항주로 되돌아갔다. 한편 재가하고 싶지 않다는 유씨가 시비 추은과 함께 길을 떠나 항주로 갔다.
- ⑯ 안기가 수청을 들라고 명하자 동선이 고통을 겪다가 편지를 담 밑에 묻고 이틀만에 세상을 떠났다. 항주에 도착한 유씨가 동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였는데 밤이 되자 동선이 다시 환생하였다. 동선이 죽은 동안 저승에서 서문적 조상인 만세산신(萬歲山神)을 통해 서문적이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⑰ 한편 금나라는 악무목(岳武穆)이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소식은 받고 안기를 붙잡았다. 동선은 유부인과 함께 연경으로 갔다.
- ⑱ 동선 일행은 40일 동안 길을 가다가 서하관(西河館)에 이르러 장만부와 만났다. 동료인 호손달희(胡孫槿嬭)가 동선을 차지하려고 하여 밤에 동선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을 잡아 자기 방으로 이끌어 강포(強暴)한 짓을 하려고 했다. 동선이 도끼로 자기 손을 베어 호손달희의 이마에 내던졌다. 장만부는 동선한테 죄책감을 느껴 연경까지 호송해 주었다.
- ⑲ 동선 일행은 연경에 도착해 옥바라지를 맡은 사람을 찾아 그를 대신하여 옥에 있는 서문적에게 밥을 해 주었다. 어느 날 동선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니 성안이 요란하였다. 동선은 옥에 있는 죄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 ⑳ 동선 일행이 냇가 상류에서 내려온 시체를 꺼내 보니 바로 서문적이었다. 서문적이 살아나며 동선 일행과 함께 연경을 떠나게 되었다.
- ㉑ 소주에 도착하여 동선의 주모를 모시고 최부인의 묘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고서 도 죽산으로 들어가 숨었다.

여기까지 한문본에 대해 경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문활자본에 관한 경계를 살펴볼 것이다. 국문활자본은 당 현종 시절에 남주인공인 서문적과 여주인공이 동선을 주된 사랑을 그린 국문소설인데, 한문본과 전반 부분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서사 전개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후반 부분에서 보면 한문본과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작하였다. 국문활자본의 서사 단락은 다음과 같다.

- (1) 중국 당 현종 시절에 절강 소흥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서(西)이고 이름은 문적(門勳)이라 했다.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모친 최씨를 모시고 살았는데 산동의 유씨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 (2) 어느날 친구인 장만부·최염자와 여행을 떠났다. 삼인은 먼저 먹라수(汨羅水)에 이르

혔고 삼강을 향하는 도중에 행화촌(杏花村)에서 양자당(陽子堂)을 찾는 도중에 우연히 한 미인과 만났다.

- (3) 그 여인은 이름이 설영이라 했다. 둘은 사랑을 나누었는데 오래 머무르다가 설영이 설득하여 다시 길을 떠났다.
- (4) 장만부·최염자 양인이 서문적과 향주로 향하였다.
- (5) 향주(杭州)에 도착하여 도죽산(桃竹山)에 들어가니 노래 소리를 들었는데 서문적이 옥저를 꺼내 화답하였다. 죽림에 있는 노고(老姑)에게 통해 가곡을 부른 자가 자기의 딸이고 이름이 동선이라는 말을 들었다.
- (6) 서문적이 동선의 방 밖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동선의 가곡 이름에 대해 묻고 대답하였다. 동선이 기쁘게 나와서 거문고를 꺼내어 가곡을 한 수 더 연주하였다.
- (7) 서문적이 동선과 꿈을 통해 서로 삼생연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나누었다. 떠나갈 때가 되었는데도 서문적이 떠나지 않자 동선이 설득하여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 (8) 서문적은 모친과 부인에게 동선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서문적은 다시 향주에 가려다가 여진(女眞)이 침략하니, 가족들을 데리고 동명(東溟) 섬으로 들어가 숨었다. 한편 동선은 선동(仙童)의 모습으로 변복하여 순무진(巡撫陣)에 가서 서문적을 추천해 주었다. 순무진 부장(副將) 안기(安琦)가 동선이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 (9) 서문적은 동선이 추천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 군대에 번잡한 일이 다 해결하고서 도죽산에 가서 동선과 만났다.
- (10) 서문적은 반란을 일으킨 여진군 장군에게 여진왕의 왕작(王爵)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설득하여 귀순을 정했다.
- (11) 서문적이 여진의 향서(降書)를 받았다. 순무가 여진의 향서와 첩서를 천자에게 올

- 리려 했는데, 안기가 한섭과 도모하여 서문적과 순무가 계책으로 여진과 상통하는 첩서로 고치고 임금에게 올렸다. 임금이 대노하여, 서문적은 연옥에 갇혔다.
- (12) 한편 안기가 동선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동선을 반복해서 부르며 압박하기도 하였으나 동선이 허락하지 않았다. 안기가 서문적이 죽었다는 내용의 거짓 편지를 만들어 만세산으로 보냈다.
- (13) 모친 최부인이 서문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유씨가 서문적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항주에 있는 동선에게 서문적이 죽었다는 소식의 편지를 보냈다. 서문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즉일로 소비 춘운과 변경으로 출발했다.
- (14) 여러 날이 지나 안기가 관차(官差)에게 동선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항주로 돌아온 동선은 안기가 서문적을 모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안기의 구애를 거절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
- (15) 옥에서 나온 동선이 거짓으로 발상하였다. 한편 유부인은 동선이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꿈을 꾸고는 시비 효진과 항주로 출발하였다. 항주에 도착한 유씨는 동선이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밤에 노주(奴主) 4인이 연경으로 갔는데, 소주에 도착하여 서문적의 친구인 장만부와 만나고서 동선 등 4인을 연국(燕國)까지 호송하였다.
- (16) 노주 네 사람은 서문적을 위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시비 효진과 춘운이 나아가 구걸하였다.
- (17) 두 시비가 우연히 옛날 참지정사(參知政事) 소경운(蘇慶雲)의 후예 소참정(蘇參政)의 부중에 이르렀다. 두 시비는 소참정의 딸과 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부인이 동선과 유씨를 가련히 여겨 시비에게 음식을 넉넉하게 주고서 동선·유부인과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다.
- (18) 동선·유부인이 소참정과 서로 자질지례(子姪之禮)로 대하였다.

- (19) 동선이 춘운과 성경(盛京)으로 가서 신원(伸冤)하기로 하였다. 황성에 이르러 궐문에 나아가 승문고를 두드렸다. 임금이 격장(激漿)을 읽어 보고서 안기가 어떻게 서문적을 모해하였는지를 다 알게 되어 사관에게 한섭을 처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 (20) 임금이 서문적을 항주자사로 삼고, 안기에게 조율징판(照律懲判)하라고 한 뒤, 한섭을 삭탈관직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선과 유부인에게 각자 총렬부인과 숙부인을 봉했다.
- (21) 한편 유씨가 동선의 소식을 받을 수 없으며 효진을 시키고 알아보라고 했다. 동선의 소식을 알아보면서 서문적이 항주 자사로 임하는 것임을 알게 된 효진이 관부에 가서 서문적을 찾았다. 서문적이 유씨를 만나고서 모친 최부인이 돌아가신 소식을 알게 된 이후에 임금에게 고향에 귀환하고 싶은 심정을 표출하였다. 이때 참정 부부는 서문적의 효도를 감탄하여 자기 딸인 소소저가 서문적에게 부탁했다.
- (22) 서문적이 동선·유부인을 데리고 항주에 이르러 3년 후에 소소저와 성례하였다. 3~4년 후에 소참정과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 (23) 한편 설영과 경경은 서문적을 찾았는데, 경경은 호색한 소주자사의 수청 명령을 거절하였다. 자사가 분하여 경경을 붙잡아 형을 집행하였다.
- (24) 소주자사가 서문적의 공문을 받고 채단과 은자를 경경에게 주고 서문적과 만나게 되었다. 10여 년을 지나 유부인은 3녀를 낳고, 소부인은 1남 2녀를 낳고, 설영은 1남 1녀를 낳고, 동선은 2남 2녀를 낳고, 경경은 5남 2녀를 낳았다. 서문적은 70세가 되자 동선과 도죽산으로 들어갔다.

이상으로 국문활자본의 경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문필사본에 관한 경계를 살펴볼 것이다. 국문필사본은 제1권 제1책과 제3권 제3책을 확인할 수 없으니, 앞부분과 뒷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국문필사본은 장회체가 아니지만, 국문활자본과 해당하는 내용이 제11회 중간부분부터 제18회 중간까지 해당하므로 거기에 맞추어, 서사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번호는 국문활자본의 내용과 맞춘 것이다.

- ⑪ 안기와 한섭은 둘이서 상의하고 서문적이 여진과 가짜로 상통하는 첩서를 만들고 임금에게 올렸다. 임금이 대노하였고, 서문적은 연옥에 갇혔다.
- ⑫ 한편 안기가 동선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안기는 동선을 거듭 부르고 압박하기도 하였으나 동선이 허락하지 않았다. 안기가 서문적이 죽었다는 내용의 거짓 편지를 만들어 만세산으로 보냈다.
- ⑬ 서문적의 모친 최부인이 서문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떠났다. 유씨가 서문적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항주에 있는 동선에게 서문적이 죽었다는 소식의 편지를 보냈다. 동선은 서문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소비 춘운과 변경으로 출발했다.
- ⑭ 여러 날이 지나 안기가 관차(官差)에게 동선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항주로 돌아온 동선이 안기가 서문적을 모해한 것을 알았다. 동선은 안기의 구애를 거절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
- ⑮ 옥에서 나온 동선이 거짓으로 발상하였다. 한편 유씨가 동선과 이별한 지 오래되었으나 소식을 받을 수 없으니 걱정이 된 유씨가 효진과 항주로 출발했다. 항주에 도착한 유씨가 동선이 죽지 않는 것을 밝히고 밤에 노주(奴主) 4인이 연경으로 향한다. 어느 곳에 도착하여 서문적의 친구인 장만부와 만났는데 그의 동료인 달이 동선을 차지하려고 하여 밤에 동선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을 잡아 자기 방으로 이끌어 강포(強暴)한 짓을 하려 했다. 그러자 동선이 칼을 들어 손을 찌고 달에게 달려 들었다. 장만부가 동선에게 죄책감을 느껴 연경까지 호송해 주었다.
- ⑯ 노주 4인이 서문적에게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음식을 준비하였다. 돈이 다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시비 효진과 춘운이 나아가 구걸하였다.
- ⑰ 두 시비는 우연히 옛날 참지정사(參知政事) 소경운(蘇慶雲)의 후에 소참정(蘇參政) 부중에 도착했다. 소참정의 딸과 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인이 그들의 경력이 너무 애련해서 두 시비한테 동선·유부인과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다.

㉔ 아침에 동선·유씨·소소저 삼인이 같이 소부인에게 문안을 올렸다.

2) 한문본·국문활자본·국문필사본의 차이점

앞서 한문본·국문활자본·국문필사본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국문활자본만 장회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문본과 국문필사본은 장회체의 형식이 아니다.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의 내용을 보면 국문활자본의 전반부는 한문본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후반부는 크게 변개가 일어났으므로 국문본은 개작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세 이본의 내용에 관한 차이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차이점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표를 만들고 다섯 단락으로 구분했다.

한문본	국문필사본	국문활자본
① 항주에 사에 능한 자가 이름이 동선이고, 10여 년 후에 도죽산으로 들어갔다.	×	(1) ×
② 서문적의 출생 배경	×	(2) 서문적의 출생 배경
③~⑥ 서문적이 친구 두 명과 산천유람하면서 양주, 서주에서 여인 두 명과 인연을 맺고, 항주에 있는 동선과 삼생 연분이 있는 줄 알고, 부정적인 인물에게 각종 고단을 겪고 나서 연경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	×	(3)~(7) 서문적이 친구 두 명과 산천유람하면서 양주, 서주에서 여인 두 명과 인연을 맺고, 항주에 있는 동선과 삼생 연분이 있는 줄 알고, 부정적인 인물에게 각종 고난을 겪고 나서 연경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
⑦~⑳ 동선이 서문적을 구하는 도중에 서문적의 친구인 장만부의 동료인 호손달희에게 강포를 당할 뻔했다.	㉑~㉔ 동선이 서문적의 친구인 장만부의 동료 달희에게 강포를 당할 뻔하고, 연경에 이르러, 소참	(8)~(19) 동선이 서문적의 친구인 장만부의 도움을 받고 연경에 이르러 소참정과 만나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정과 우연히 만나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㉔ 연경에 도착한 동선이 마침 여진이 악무목에게 대패하여 서문적을 죽을 줄 아는 동선이 자살하려다가 물속에 있는 서문적을 구해주고 천리 밖에 있는 도죽산으로 들어가 은거했다.	×	(20)~(24) 동선이 등문고 올리고 서문적을 구해 항상께 충렬부인으로 봉하여 서문적이 항주자사가 되고, 설영과 경경이도 찾아오고 결국 2부인 3첩과 행복하게 살다가 수십 년 지나가 동선과 도죽산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위의 표에서 국문필사본은 ㉒~㉔까지 내용이 국문활자본과의 제11회 중간부터 제18회 중간까지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부분만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볼 것이다.

첫째 단락은 주로 동선과 「동선사(洞仙詞)」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국문활자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둘째 단락은 주로 남자주인공인 서문적에 관한 인물 소개와 역사 배경이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정강 연간에 서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적으로, 옛 항주자사 서문감의 후손이었다. 어려서 자모의 가르침을 받아, 일찍부터 명예와 재주를 자부하였으며,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 얼마이지 않았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변경 만세산 아래서 살았다.[靖康中, 有西門生者, 名勳, 故杭州刺史西門闕之後也. 幼被慈母之教, 夙負名藝, 倜儻不拘. 世居汴京之萬歲山下.](한문본, 번역 33면, 원문 127면.)

중국 당 현종 시절에 절강(浙江) 땅 소흥부(紹興府)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서(西)요, 이름 문적(文勳)이라.(국문활자본, 11면.)

한문본에는 서문적의 성은 서문(西門)이고 자는 적(勳)으로 되어 있다. 국문활자본에는 성이 서(西)이고 이름이 문적(文勳)이라 했다. 그리고 인용문을 보면 작품의 배경도 다르다. 한문본에서는 송나라 정강(靖康) 연관을 배경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문본에서는 중국 당나라 현종 때로 설정되었다.

둘째 단락은 주로 서문적이 동선과 만나는 내용이다. 서문적과 친구 두 명이 먼저 서

주에 이르러 설영이라는 기녀와 만나고 사랑을 나누며, 또 양주에 있는 경경과 사랑을 나누다 떠나 다시 항주로 출발하였다. 항주에 도착한 서문적이 항주 경내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거문고를 연주하며 동선사를 부르고 동선과 만나고 연분을 맺는다. 다음에는 두 이본에서 서문적과 동선이 처음 만나는 장소이다.

두 사람이 안 된다고 했으나, 서문생이 그들을 억지로 이끌어 마침내 함께 항주에 들어가니, 성곽이 두루 펼쳐지고 강호(江湖)가 띠처럼 둘렀으며 동우(棟宇)가 연결되고 여염집들이 빗살처럼 늘어섰는데, 호화롭게 장식한 배는 물가에서 흔들거렸고 화려하게 꾸민 거마(車馬)는 다리 위에 이어졌다.[二人不可, 生强起之, 遂與入杭, 則城郭周遍, 江湖如帶, 棟宇連結, 閭閻如節, 彩纜、錦帆, 飄拂於洲間, 玉蹄、金軸, 絡繹於橋上.](한문본, 번역 51면, 원문 139면.)

수일 성중에 두류하여 경내를 구경하고, 다시 산경(山景)을 담하여 심수(深邃)한 곳에 당도하니 이곳은 도죽산이라 산길을 따라 점점 올라가니 창송녹죽(蒼松綠竹)은 좌우에 울울하고 기화요초는 전후에 총잡(叢雜)한데, 수목 사이로 수간화각(數間畫閣)이 반공에 솟았으니 은은한 지취(志趣) 선경(仙境)이 분면하더라.(국문활자본, 31면.)

서문적이 동선과 처음에 만나는 장소를 살펴보면, 한문본에서는 항주 경내 어느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문활자본에는 항주 경내에 있는 도죽산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한문본에도 도죽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위치는 멀리 바다 속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국문활자본에는 도죽산의 위치가 항주 경내에 있다. 그러므로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은 남녀주인공의 결연 장소가 다르다. 이어서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에는 서문적과 동선이 만나자마자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둘이 꿈을 통해 삼생연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인연이 맺어진다.

“동빈아, 동빈아! 네가 동선을 만났으니, 삼생의 좋은 인연이라 할 만하다.” 서문생이 잠에서 깨어난 뒤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겨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다가 곧장 동선에게 가서 말했다.(…중략…) “저 또한 이런 꿈을 꾸었으니, 과연 누런 관을 쓰고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첩에게 ‘서문씨(西門氏)를 모르겠느냐?’ 옥동(玉洞) 여선(呂仙)의 영(靈)이 만세산으로 옮겨가 의탁하여 서문적을 잉태해 냈으니, 바로 동빈이다. 너는 본디 환공(桓公)의 딸이자 옥동의 선녀로, 상(床)에 기대어 통소를 불다가 별곡(別曲)을 그르쳐 바다 가운데로 적강(謫降)하였는데 이제 수백 기(紀)가 되었다. 기적(妓籍)에 강생(降生)한 것은 특별히 고초를 겪도록 하여 이전의 허물을 속죄토록 한 것이다. 십여 년 뒤에 응당 복지(福地)에 들어갈 것이니, 서문씨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좋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저에게 동선이라는 자를

지어준 것은 아마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洞賓，洞賓！汝逢洞仙，可謂三生好緣矣。既覺，心異之，坐而待朝，直抵洞仙曰：“有夢如是，三生好緣，雖云然矣，呼我爲洞賓，其旨未可祥也，娘起釋之。”洞仙聞既驚歎曰：“吾亦有時夢，果有黃冠服青者，謂妾曰：不識西門氏乎？玉洞呂仙之靈，移托萬歲山，孕出西門勣，乃是洞賓也。汝則本以桓公之女、玉洞之仙，據床吹簫，誤了別曲，謫來海中，今數百紀于茲。降生於妓籍者，特令苦之，以贖前愆爾，后十餘年，當入福地，其勿捨西門氏云。”誠若是，非好緣乎？以今思之，人所以字我者，殆天意也。】(한문본, 번역 61면, 원문 146면.)

“동빈아, 네 동선을 모르느냐. 삼생연분이니 잃지 말라.”하고 간 데 없었지라.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다. 마음에 괴이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새기를 기다려 의관을 수습하고 다시 동선의 집에 이르니, 이날 밤에 동선도 역시 일몽을 얻으니 청의동자 공중으로부터 일러 왈, “동선아, 네 서문적을 알지 못하느냐. 옥동선녀의 명으로 만세산하에 탄생하여 있는 동빈이요, 너는 근본 제환공(齊桓公)의 여식으로 옥동선녀의 제자 되어 항아(姮娥)의 명을 받아 동빈과 한가지로 옥저를 불렀더니, 마침 저를 그릇 불기로 상제(上帝) 노하서海中(海)에 적거(謫居)하여 지금 수백년에 창가(倡家)에 환생케 하시고, 서생과 천정연분을 맺게 함이니 어기지 말라”(국문활자본, 41~42면.)

인용문을 보면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의 내용이 미세한 차이가 있다. 한문본의 경우에는 꿈에 누런 모자 쓴 동자(童子)가 출현하였는데, 그는 주인공들에게 삼생연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이다. 그리고 동선이 전생에 환공(桓公)의 딸이었는데 옥동의 선녀 신분으로 별곡을 그르쳤기 때문에 벌을 받고 인간세계에 기녀 신분으로 적강하였다. 국문활자본의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청의동자(靑衣童子)가 나타나며 삼생연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동선이 동빈과 함께 연주할 때 가곡을 잘못 불렀더니 상제(上帝)가 화를 내어 인간세계에 기녀 신분으로 적강했다고 알리게 되었다. 이 부분을 보면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의 출현한 동자만 좀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작품 안에 많으므로 일일로 열거하기는 어렵다.

서문적은 동선과 사랑에 빠져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 동선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에 생각을 바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마침 나라에서 여진과 전란이 일어났으므로, 서문적은 가족을 데리고 동명도로 들어가 숨었다. 한편 서문적에 관하여 아무 소식을 받을 수 없었던 동선은 마침 선무진에 인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선무진에 들어가 서문적을 추천해 주었다.

제가 변경에 있을 적에 알고 있었던 서문적은 나라의 인걸(人傑)로서 사명에 더욱 뛰어난 자입니다. 더구나 서문적은 옛 항주자사 서문감의 후예이니 본디 장종(將種)으로서 오랫동안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건대 필시 북악(北岳)이 아니면 동명(東溟)으로 달아나 숨어 있을 것이

니, 물색하여 찾아보십시오.[僕之在汴也，所知西門勳，國人之杰，尤長於辭命者也。況勳故刺史關之後也，本以將種，久處囊中，今則想必竄伏於非北岳則東溟，願物色求之。](한문본, 번역 69면, 원문 152면.)

선생은 도죽산에 은거하신 지 옥십여 년에 풍진세사(風塵世事)를 물외에 던져 두고 홍진환로(紅塵宦路)를 부운 같이 이르시더니 어젯밤에 천문을 보시고 국가 대란함을 탄식하사 변경에 한 현사를 천거하여 사직을 받들게 하심이니이다.(국문활자본, 47면.)

한문본에서는 동선이 남장을 하고 선무진에 들어가 선무사에게 서문적이 옛날 항주 자사 서문감의 후손이므로 후대도 인걸이라 말하며 추천하였다. 국문활자본에서는 동선이 윤건도복의 소동(小童) 모양으로 남장하였다. 선무진에 들어가 유명한 선생님을 가장하여 그의 명의로 서문적을 추천해 주었다. 앞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국문활자본의 미세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넷째 단락은 서문적인 안기의 모해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 소식을 알아본 동선이 서문적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로 고난을 겪는 내용이며, 이 부분은 앞의 서사 단락 가운데 국문필사본의 11~18에 해당한다. 다음에는 우선 한문본에 실려 있는, 서문적이 옥에 갇히는 내용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진의 사자가 오자, 안기는 거짓으로 화친을 배척하고 적을 도모하는 내용의 글을 서문적인 손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 저쪽 사자에게 주어 몰래 가지고 돌아가 보고하도록 했다. 여진이 대로하여 서문상객 및 상장을 포박하여 보내라고 급히 명을 내리니, 선무사의 다그치는 명령이 빠르기가 마치 우레와 번개 같았다. 상객은 피신하고자 했으나 겨를이 없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이미 갑병(甲兵)이 상방을 에워 싸고 붙잡아 가버렸다. 서문생이 여진에 이르러 원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그래도 믿어주지 않았다. 동시에 붙잡아 데려간 수백 명은 이전에 사로잡혔던 3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두 연경(燕京)에 이르러 옥(獄)에 갇히게 되었다. 동선이 이 소식을 듣고 목 놓아 통곡하며 말했다.[不多時，女眞使來到，安琦乃詐爲訴和謀敵之書，使若出於西門之手，以與彼使潛持歸報。女眞大怒，急命縛送西門上客及上將。宣撫摧督之令，急如雷電。上客欲逃無暇，蒼黃顛倒之際，已有甲兵四圍，驅逐而去，既至，極稱冤味，猶不信知。同時帶去數百，并前所虜三千餘人，皆詣燕京滯獄，仙聞之，失聲曰。](한문본, 번역 79면, 원문 159면.)

위의 내용을 보면 안기가 거짓으로 여진의 사자에게 서문적이 화친(和親)을 배척(排斥)하는 것을 도모하는 내용이 글을 위조하여 여진 사자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서문적인 연경의 옥에 갇히게 되었다.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설이라 부증 안기 선무와 서문적을 모히하고 그 공을 아스려 하고 증교 한섭으로 더부어 약속을 정하여드니 한섭니 증문과 항서를 가지고 즉쇼로 오미 안기 발서 증계를 곤쳐 써스되 적진을 이히로 달니여 녀증이 귀항하게 되는 거슬 서문적과 선무 승약하고 계집으로 동스섭이 즉시 발행 하니라 잇찌에 천중 녀증에 난을 인하여 남순호스 선무로 순무디증을 정하여 항주의 쥬찰시키고 도적을 막으라 하시□도라오신 후 쇼식을 몰나 근심하시든니□□□과 하여 니응하는 소의를 드르 시고 진로호스 안기를 초중하시고 올관을 정하여 선무와 서문적얼와 죄인 영거혈 사람을 정하여 항주로 보니시나 닛찌 선무 증문 회지을 기달이든이 문득 박게 아 허거늘 선무와 서칭이 아물언 줄 몰로고 황망이 나오니 도사 항거의 슯고 안기는 항주 팔영 유지을 맞타 복형사비허고 즉일 이 인을 비소로 본니니 양인이 양□탄식 갈로디(국문필사본, 1~3면.)

재설, 이때에 순문 첩서를 천자께 올리려 할새, 안기 시기하여 한 계책을 생각하고 장교 한섭을 불러와, 이제 순무 천자께 첩서와 여진의 항서를 올리려 하니, 이때를 타서 도모치 못하면 서문적은 일등 공신이 되고 우리는 쓸 데가 없이 될 터이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내 들어가 그대를 천거하여 장문(狀文)을 보내게 할 것이니, 그 글을 가지고 내게로 도로 오라.(국문활자본, 58~59면.)

국문필사본의 인용문을 보면 안기·한섭이 선무와 장계를 고쳐 서문적에게 모해함을 당하는 내용이다. 국문활자본이 국문필사본과의 내용이 흡사한다. 안기가 장교 한섭과 상의하여 장계를 고쳤다. 이로 인해 서문적이 여진과 상통하는 죄로 연경의 옥에 갇혔다. 국문활자본에는 해당 내용이 간단하게 언급되었고 국문필사본에서는 더 풍부하게 서술하였다.

국문본에는 한문본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도 추가되어 있다. 한섭이 바로 그 인물인데, 그가 출현한 이유는 뒤에 동선이 등문고를 올리고 황상에게 안기의 죄를 고할 때에 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한 복선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국문필사본이 국문활자본을 비해서 서사 내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국문활자본의 내용보다 더 세부적으로 첨가해 보인다. 결국은 국문활자본의 내용이 국문필사본보다 더 간단하게 생략한 것이다. 다음에 한문본에는 안기가 동선을 잡아 사람을 시켜 동선에게 자기 본심을 표출하는 내용이다.

이때 안기가 홀로 남아 성을 지키니 복종(僕從)과 호령(號令)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이에 성안을 수색해 동선을 붙잡아 와서는 사람을 시켜 공역(供役)을 감독하게 하고 이어서 자기의 본

심을 전하였다. 동선이 전혀 허락하지 않자, [時安琦獨留守城, 僕從、號令, 一出於其手, 乃搜城中, 得洞仙, 使監供役, 仍通本意. 洞仙不應許](한문본, 번역 80면, 원문 159~160면.)

그리고 한문본에는 안기가 동선에게 서신을 통해 수청하라는 말을 전했는데, 동선은 편지를 받아 읽은 후에 편지를 통하여 거절하였다. 관련된 편지를 다음과 같다.

제비는 반드시 쌍으로 날고 까치는 홀로 깃들이지 않으니, 동물은 다 짝을 찾고 사람 또한 정이 있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옥이 단심(丹心)이 있으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첩이 청춘(靑春) 시절에 몸이 윤락에 종사하여 문 앞에는 옛 손님이요 베개에는 새 사람이었으니, 한 번 맞이하고 보내면서 몇 번이나 희비(喜悲)가 엇갈렸겠습니까? 지난번에 상객(上客)께서 변경(汴京)에서 오시어 초췌한 저를 버리지 않고 특별히 마음을 허락하시니, 함께 살고 함께 죽자는 맹세는 있었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는 탄식은 없었습니다. 첩은 이에 옛날에 물들었던 혼탄함을 제거하고, 예전에 익혔던 문란함을 고쳤습니다. 주(周)나라의 덕(德)이 유행하니 비록 「한광(漢廣)」의 유녀(遊女)에 부끄러웠으나, 위(衛)나라의 풍속이 음란하니 채당(采唐)의 여풍(餘風)을 끊고 싶었습니다. 즐거운 군자(君子)는 실로 나의 배필(配匹)이요, 이런 양인(兩人)은 우러러 바라던 분입니다. 하늘이 순(順)하지 않음이 한탄스럽고 시사(時事)가 다난(多難)함이 애통한데, 일생(一生)의 기구(崎嶇)한 운명을 만나 만리(萬里)의 이별을 근심하니, 원망은 하늘과 사람에게 있지 않지만 한숨은 전쟁으로 인해 늘 절절합니다. 이 충정(衷情) 간직하고 독실히 생각할 따름이다. 임이 그리우나 만나지 못하는데 나로 하여 금 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사람 마음을 몰라 주시고 스승으로 좋지 못한 덕을 취하십니까? 군대의 대오(隊伍)를 엄히 하고 방패와 창을 정돈하는 것은 오늘날의 급선무요, 담을 넘어가 신첩(臣妾)을 피는 것은 유서(遺書)에서 경계한 바입니다. 성대해 빛나고 존귀하신 분이로서 이렇게 심히 더럽고 비천한 것을 가까이하시니,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어찌 스스로 성대한 덕을 실추하시며 가만히 앉아 명망(名望)을 잃으셔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열녀(烈女)와 충신(忠臣)은 이름은 다르지만 도(道)는 한가지입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곧 송조(宋朝)의 송나라의 옷을 입고 송나라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송나라가 장군에게 실로 이미 후한 은혜를 베풀었으니, 장군께서 송나라에 어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종일관(始終一貫)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한가하고 편안할 때에는 따르다가 위태롭고 망할 때에 등져서는 안 되는 것이니, 어찌 차마 복조 구차히 살 수 있으며, 어찌 차마 초심(初心)을 바꾸어 몸을 허락한 의(義)를 생각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비단 몹시도 마음으로 차마 하지 못하고 의리상 불가할 뿐만 아닙니다. 아녀자의 자잘한 말과 보잘것없는 절개로 말하자면 비록 같은 수준에 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나, 이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남녀가 한가지입니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미 지각(知覺)의 양능(良能)이 있는데 유독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겠습니까? 이미 강상(綱常)의 법전(法典)을 들었는데 유독 부부(夫婦)의 의리(義理)에 어둡겠습니까? 군자의 도(道)는 이에서 단서(端緒)가 시작하고 부부의 공음은 이를 만나보는 것이 이룹니다. 이런 까닭에 원숭이가 영남(嶺南)에서 슬프게 울자 배씨(裴

氏)가 이에 귀를 자르려 하였으니 이는 이덕무(李德懋)를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이 술잔에서 변하자 노씨(盧氏)가 또한 눈을 도려냈으니 이는 방현령(房玄齡)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위를 꺼내 머리를 자르고 시랑(侍郎)이 올린 표문(表文)을 헛된 것으로 만들었으며 칼을 뽑아 코를 자르고 귀인(貴人)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으니, 절개를 세움이 매우 높았으며 몸가짐이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물녘 뽕나무 숲에 금을 가지고 와서 전해 주었으니, 가소롭다. 추호자(秋胡子)여! 물이 점대(漸臺)까지 불어났는데도 믿을 만한 부신(符信)이 없었으니, 슬프다. 초부인(楚夫人)이여! 삼재(三才)가 자리를 나눔에 실가(室家)의 도가 능히 융성해지고, 두 집안이 사귀어 즐거워함에 정렬(貞烈)의 기풍(氣風)이 이에 드럽습니다. 고상한 정조(情操)를 떨쳐 홀로 빼어나니 노책(魯冊)에서는 이에 영화(英華)의 명성(名聲)을 드날리고, 높은 절조(節操)를 굳게 지켜 외로이 우뚝하니 주편(周篇)에서는 이에 무성(茂盛)한 실제(實際)를 드높였습니다. 다만 순결(純潔)을 지킬 뿐, 어찌 더럽고 욕되게 하겠습니까? 이제 첩은 자질이 어리석어 지금을 본받지 않고 옛걸을 배웠으며, 본성이 편벽하여 새로움을 중시하지 않고 예스러움을 추구합니다. 하늘 같은 남편과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바람 부는 풀잎의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데, 슬픈 마음과 근심스런 한탄이 안에서 서로 공격하고 부정(不正)한 말과 사나운 행실이 그 바깥에서 또 침범하니, 하 가닥 실날같이 가냘픈 목숨이 조석(朝夕)에 달려 있습니다. 한스럽게도 기러기와 고니를 따라 안개와 구름을 헤치면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느 푸른 바다와 먼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는군요. 그리운 그얼굴을 다시 만나 예전의 일을 또다시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한 번만 보아도 충분할 터이니 만 번 죽더라도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애초의 마음은 일월(日月)처럼 밝고 예전의 약속은 금석(金石)처럼 굳으니, 일월처럼 밝은 마음은 이지러뜨릴 수 없고 금석처럼 굳은 약속은 깨뜨릴 수 없습니다. 설령 달콤한 말이 귀를 즐겁게 하고 화려한 이익이 눈을 유혹하더라도 오히려 옳기어 변하게 할 수 없으며, 시퍼런 칼날이 앞을 가로막고 우레와 번개가 위에 있더라도 끝내 흔들어 빼앗을 수 없으니, 충신의 절의(節義)는 늘 이에서 다할 것이며 열녀의 절개(節概)는 이에서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번 아녀자를 보고는 몰래 사정(私情)을 일으켜, 공의(公儀)를 따르려던 애초의 마음을 도외시하시며 사람을 감복시키는 장한 절의를 훼손하십니까? 그 생각은 잘못된 것과 상객(上客)이 화를 만난 것이 정말로 장군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격노(激怒)한 적(敵)과 영합해 국가의 대사(大事)를 그르쳐, 안새(鴈塞)로 막빈(幕賓)을 내몰고 어문(魚門)에 위졸(衛卒)을 내버려, 타인의 자손들을 고아로 만들고 타인의 처첩들을 과부로 만들었으니, 저는 그옥이 장군을 위하여 취하지 않습니다. 수기를 거느리고 가서 남편을 구출한 소씨(邵氏)에게 부끄럽고 차꼬와 수갑을 풀어주고 남편을 대신한 원강(援姜)을 슬퍼하니, 이는 곧 첩의 제일(第一)의 허물입니다. 첩이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서 뱀 아가리에 남은 고기 신세에서 벗어나도록 하지도 못하였으니, 항상 개탄하기에도 겨를이 없고 슬퍼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데, 감히 다른 사람과 즐기면서 외물에 마음이 이끌려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은 저와 같음이 있겠습니까? 신자(臣子)가 되어 충성스럽지 못하고 비첩(婢妾)이 되어 정절이 없다면, 천지 사이에 죄가 용납되지 못하고 귀신에게 막대(莫大)한 재앙을 받으니, 비록 살고 싶으나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을 하였다면 아마 죽을 것입니다. 이 밖에 다른 것은 없으니 장군께서는 용서해 주소서! [鶯必雙飛, 鵲不孤棲, 物皆求耦, 人亦有情. 今承垂教, 敢不從命? 竊有寸丹, 聊以暴白. 妾在青春, 身事娛樂, 門前舊客, 枕上新人, 一番迎送, 幾度悲歡? 頃緣上客, 而

至, 不棄憔悴, 特許心情, 有偕生偕死之盟, 無莫往莫來之歎. 妾於是, 去其舊染之溷濁, 革其前習之紛紜. 周德流行, 雖愧漢廣之遊女, 衛俗淫亂, 願絕采唐之餘風. 樂只君子, 實維我儀, 如此良人, 所仰望者. 嗟昊天之不惠, 痛時事之多艱, 值一生之崎運, 悶萬里之離別, 怨不在於天人, 嘆常切於干戈. 蘊此深衷, 惟是篤念, 懷人不見, 俾我可忘? 今將軍, 胡為不諒于人, 自取無良之德? 嚴部伍整干戈, 務急當日, 踰垣牆誘臣妾, 戒在遺書. 夫以顯赫尊貴之盛, 近此染惡卑賤之甚, 於理不合, 於事不當, 何可自貶盛德, 坐失瞻望乎? 何況烈女忠臣, 異名同道. 今將軍乃宋朝之忠臣, 妾乃西門之烈女也. 將軍食宋之食, 衣宋之衣, 受宋之爵, 宋之于將軍也, 固已厚矣, 將軍之於宋也, 安得不一心而終始乎? 固不可宴安而向之, 危亡而背之, 寧能忍暗付於北朝強盛之勢, 偷生於犬羊之天乎? 寧能忍岐初心, 而曾不思許身之義乎? 非徒心不忍, 義不可之甚也. 若夫兒女子瑣屑之辭卑薄之節, 雖不可同日而語之, 然有是四端, 男女一也. 身體髮膚, 受之父母, 性情元氣, 稟於天地. 既有知覺之良, 獨無羞惡之心乎? 既聞綱常之典, 獨昧夫婦之義乎? 君子之道, 造端乎此, 夫婦之貞, 利見於斯矣. 夫以是故, 猿愁嶺南, 裴乃割耳, 非思李德武乎? 蛇變樽中, 盧亦去目, 不為房玄齡乎? 出刀斷髮, 虛啓侍郎之表, 拔劍剪鼻, 不從貴人之求. 立節太高, 持身極佳. 日斜桑林, 有金來傳, 可笑秋胡子! 水漲漸臺, 無符可信, 哀哉楚夫人! 三才分位, 室家之道克隆, 二族交歡, 貞烈之風斯著. 振高情而獨秀, 魯冊於是飛花, 挺峻節而孤標, 周篇於焉騰茂. 適以純潔而已, 安用污辱為哉? 今妾天資朴愚, 不師今而學古, 素性偏齷, 不貴新而求舊. 隔所天於杳茫之際, 寄朝露於風草之間, 悲思憂嘆, 交攻于內, 邪說暴行, 又侵其外, 一縷殘喘, 非朝即夕. 恨不得隨鴻逐鵠, 裂霧穿雲, 碧海長天, 去去無邊. 重逢舊面, 再敘前事, 一見可飽, 萬死何惜? 初心炯如日月, 宿約牢如金石, 炯不可玷, 牢莫能破. 假令甘言悅耳, 華利誘目, 尚不得轉而移之, 白刃當前, 雷電在上, 終莫可搖而奪之, 忠臣之義, 恒於斯盡矣, 烈女之節, 恒於斯畢矣. 夫以將軍之忠, 其許身殉國之誠, 可以通金石蹈水火, 無所往而非大義也. 奈何一見兒女, 暗起私情, 岐循公之初心, 損服人之壯節耶? 其思慮譎, 其謀計詐. 向者, 宣撫之見敗上客之遭禍, 果不出於將軍之手乎? 迎敵人之暴怒, 誤國家之大事, 驅幕賓於鴈塞, 棄衛卒於魚門, 孤人之子孫, 寡人之妻妾, 竊為將軍不取也. 將數騎而拔之, 慙邵氏, 解桎梏而代之, 悲媛姜, 是則妾之第一愆也. 妾既不能冒險乘危, 以脫虎口之餘肉, 又不能除兇討奸, 以復所天之深讐. 一向, 慨歎之不暇, 哀悼之不足, 乃敢向人作歡, 引物牽意, 有若為人臣而懷二心者哉? 臣子而不忠, 婢妾而無貞, 罪不容於天地, 殃莫大於鬼神, 雖欲生, 其可得乎? 余所否者, 殆將死矣. 此外無他, 願將軍卒恕之哉! (한문본, 번역 82~88면, 원문 161~164면.)

안기 호언으로 지숨 기뉴히되 선니 조금도 노동치 안이하니 안기 초췌착급하여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동방화촉에 원낭금과 비취침을 갖췌고 선으로 다브러 동침하려 하나 선에 금석 갖튼 절기로 엇지 조금이나 업는지라 밤이 맛도록 힐난하다가 기문히미 제장교 문안하는지라 안기 물류하나 위업으로 뽕박지 못혈줄 앓 잇튼날 쏘 선을 불너 왈(국문필사본, 6~7면.)

안기 감언이설로 달래되 종시 듣지 아니하니 안기 도리어 무료하여 이튼날 또 선을 불러 왈(국문필사본, 62면.)

한문본에 있는 동선의 편지는 국문본 두 이본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한문본처럼 전고를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을 통해서 보면,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의 편집자가 작품을 편찬했을 때 독자들을 위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전고들을 삭제하거나 편집자가 원래 한문 수준이 높지 않아서 제대로 번역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국문필사본에서는 편지는 없지만, 안기가 동선을 불러 동침하자고 하는데, 동선의 마음을 전혀 흔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국문활자본에서는 아예 축약되었다.

한문본에서는 동선이 안기의 핍박으로 인해 자살하여 죽는 장면까지 나와 있다. 이어서 동선이 죽어 저승에서 서문적 조상인 만세산신과 만나 그를 통해 서문적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환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국문본필사본과 국문활자본 두 이본에서는 동선이 죽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죽은 체하고 안기를 속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항주로 돌아간 지 오래된 동선이 소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씨에게 문제가 생겼다. 한문본의 경우, 유씨에게는 계모가 있는데, 젊은 유씨가 일직 과부(寡婦)가 되자 불쌍히 여겨 계모가 유씨에게 재가하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절의를 지키고 싶은 유씨는 동선에게 편지를 쓰고 시비와 도망하여 항주로 동선을 찾으러 출발하였다. 다음에는 유씨가 왜 동선을 찾으러 가는 이유이다.

유씨의 본가(本家)에는 계모(繼母)가 있었는데, 계모의 본족(本族)인 한 홀라비가 유씨를 매우 간절히 구하였으므로, 이에 유씨를 불러들여 절개를 빼앗으려 하였다. 유씨가 절조(節操)가 옥(玉)과 같아 남편의 복(服)을 아직 벗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니, 그런 논의는 비록 잠잠해졌으나 그래도 마음을 돌리려는 말이 있어 그 기세가 그치지 않았다. 서문씨(西門氏)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좋은 말로 달래면서 돌아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劉氏之本宅, 有繼母在堂, 繼母之本族, 有鰥夫, 求劉氏甚懇, 內邀由來, 欲奪其志. 劉氏所操如玉, 托以夫服未闕, 其議雖寢, 然尚有轉圜之說, 其勢不已. 慾遷西門, 則誘之以好言, 牢不許遷.](한문본, 번역 101~102면, 원문 173면.)

한문본에 있는 동선의 편지는 해당하는 내용이 국문필사본·국문활자본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결말 부분과 연관성이 없어서 삭제할 것인가 생각한다.

한문본이 국문필사본과에 부정적인 인물로 안기, 호손달희[달], 장만부 세 명이 있는데,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 안기이고 그 다음이 바로 호손달희라 할 수 있다. 호손달희라는 인물은 국문필사본에 ‘달’로 나타난다. 그런데 국문활자본에는 호손달희[달]에 해

당하는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게다가 한문본에는 부정적인 인물이 서문적의 친구인 장만부가 있는데 국문활자본에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한문본과 국문필사본에서의 장만부는 동선의 미색을 빠진 동료인 호손달희에게 어떻게 동선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국문활자본의 경우에는 장만부가 동선의 곤란한 상황을 알게 된 이후, 돈을 베풀고 연경까지 동선을 보호해주는 긍정적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다섯째 단락인 한문본 ㉑과 국문활자본 (20)~(24)는 주로 동선이 연경에 이르러 서문적을 구해주는 내용이다. 한문본은 여기에서 작품 내용이 끝나지만, 국문본 두 이본에서는 여기까지가 작품의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한문본에서는 동선, 유씨와 시비 두 명이 연경에 이르렀고, 이때 악무목 장군이 여진과 대전하여 이기자 여진 쪽에서는 연옥에 갇힌 죄인들이 악무목을 도와줄까 걱정이 되어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린다. 이때 서문적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동선이 자살하려다가 냇물에서 한 손을 보는데, 그것은 전에 호손달희에게 던진 손이었고 그 손이 어떤 시체를 잡고 있었다. 이에 시체를 안고 나오니 바로 서문적이었다. 서문적은 살아난 뒤 바로 동선·유씨와 함께 바다 속에 있는 도죽산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여기까지는 한문본의 결말까지의 내용이다. 반면에 국문활자본에는 동선이 유씨와 연경까지 도착한 이후에 내용의 변개가 크게 일어난다. 국문필사본의 경우 이 부분이 낙질이므로 해당 내용을 알 수 없다.

국문활자본에는 연경에 도착한 동선이 돈이 다 떨어져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우연히 소참정이라는 인물이 출현한다. 소참정의 도움으로 동선이 연경에 가서 등문고를 올리고 황상에게 안기의 죄상을 일일이 작성하여 올렸다. 황상은 동선의 절의에 탄복하고 그녀가 기녀 신분이지만 총렬부인으로 봉하였으며, 이어서 서문적을 항주자사로 임명하였다. 이때 서문적이 설영과 경경을 생각하며 동선에게 이 둘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해주었다. 마침 설영과 경경이 연경으로 가려고 할 때 소주자사가 경경의 미모를 알고 수청하라고 명하였는데 경경에게 거절을 당하였다. 소주자사는 서문적이 설영과 경경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옥에 갇혀 있는 경경을 풀어 주었다. 이후에 서문적은 소참정의 딸과 결혼하여 2부인과 3명 가인을 두고 자식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아다가 수십 년 후에 마침내 동선과 도죽산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또 몇 년 후에 유씨가 자식에게 서문적과 동선을 찾으라고 하였는데 못 찾게 되었다. 동선은 서문적과 다시 신선 신분으로 천상계로 회귀하였다.

한문본과 국문본 사이에는 인물의 이름에 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서문적의 친구 두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한문본에서는 최심(崔滄)[최염자]이고 국문활자본에서는

최염자로 적어 놓았다. 이어서 서문적의 부인 유씨의 시비와 동선의 시비는 각각 한문본에서는 소진(小眞)과 추은(秋銀)이고, 국문활자본과 국문필사본에서는 각각 효진과 춘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호손달희라는 자가 있는데 국문활자본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국문필사본에는 호손달희가 아닌 ‘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문본에는 서문적이 서문감(西門關)이 후손인데 국문활자본에는 서갑지로 적혀 있다. 그리고 후반 부분에 국문활자본과 국문필사본에는 있는 인물들, 예를 들면 소참정(蘇參政) 부부와 소소저(蘇小姐), 시비 초운(楚雲) 등은 한문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다.

지금까지 국문본 「동선기」의 서지 사항을 정리했고 다음에는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의 관한 서사 단락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한문본을 바탕으로 두고 국문필사본이 국문활자본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한문본의 내용인 ①~⑯과 국문활자본의 내용인 (1)~(14)를 비교하면 국문본은 한문본을 번역하면서도 변개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문필사본의 경우는 완질이 아니므로 비교할 수가 없다. ⑰~⑳에는 서사가 크게 변개가 일어났다. 한문본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들이 국문본 두 이본에 뒤에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다. 다음을 제Ⅲ장에서는 한문본을 바탕으로 두고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이 번역 양상과 개작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Ⅲ. 국문본 「동선기」의 번역과 개작

전기소설의 국문본은 크게 나누어 보면 번역본과 개작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네 단계로 분리할 수 있다. 첫째, 원작과 거의 차이가 발견할 수 없고 의도적인 변개를 시도하지 않고 제대로 번역되는 번역본이다. 이를 직역본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직역본에 비해 어느 정도 변개가 되어 있다. 셋째, 원래 작품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을 첨가한 개작본이 있다. 넷째, 원래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된 개작본도 있다.²⁷⁾ 국문본 「동선기」는 이 가운데 셋째 경우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국문본 「동선기」를 중심으로 한문본을 바탕으로 어떻게 번역되고 개작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고전소설인 「구운몽」과 「춘향전」이 국문활자본 「동선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1. 국문본 「동선기」의 번역 양상

여기에서는 우선 국문본의 번역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문본의 서두는 다음과 같다.

동선의 유향(遺鄕)은 오래되었다. 당(唐)나라 때에 서주(徐州)와 항주(杭州) 사람이 사(詞)에 능하였는지라 후세에 전수하였으나 그 깊은 뜻을 다하지는 못하였더니, 항주의 한 기녀가 이를 잘 이해하여 성하(星河)와 월장(月帳)의 진향(眞響)을 모두 깨달았다. 수십 년 후에 도죽산으로 거두어 들어갔는데, 그 산은 바다 남쪽 수천 리 되는 곳에 있다. 세상에는 그녀가 어디에서 삶을 마쳤는지 아는 이가 없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洞仙之遺鄕, 古也. 皇唐之際, 徐、杭人長於詞, 後來傳得而未極其趣. 杭有一妓, 能以理會得之, 悉解星河、月帳之遺眞鄕. 後數十年, 捲入桃竹山, 山在海南累千里. 世莫知其所終. 其詳在下.](한문본, 번역 34면, 원문 127면.)

한문본의 서두에 실려 있는 요약적 내용이다. 여기를 보면 당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때문에 국문활자본에서 시대적 배경이 당나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詞)는 당나라 때에 창작되었고, 능한 자가 없기에 후세로 전하였는데, 항주에 동선이라는

27) 엄태식, 앞의 논문, 34~36면.

기녀가 이 사를 잘 이해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뒤에 결말 부분에 동선이 서문적과 도죽산으로 들어가서 은거(隱居)한다는 내용과 서로 조응함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국문활자본의 시대 설정은 한문본의 서문에 나타난 시대 설정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작품에 삽입된 전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엄태식의 연구를 통해 「동선기」에 사용된 전고가 자세히 밝혀진 바 있는데, 한문본에는 10통의 편지가 삽입되어 있다. 한문소설에 삽입된 편지는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인물의 형상화에 기여하며, 서사의 편폭을 확장시키는 등의 기능을 한다. 「동선기」의 경우는 전고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²⁸⁾

국문활자본을 살펴보면 한문본에 비해 전고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한문본에는 전고가 대부분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국문활자본에는 편지가 몇 편만 들어가 있으며, 전고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낙질본인 국문필자본에도 편지 2통이 실려 있다. 국문본 두 이본에 실려 있는 편지를 보면 한문본에 실려 있는 편지와 차이가 있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국문활자본이 한문본의 내용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부(丈夫)가 세상에 태어남에,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처자(妻子)가 있어,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부모를 드러내고 양육(養育)하여 처자를 편하게 하며, 과거에 좋은 성적으로 급제하고 훌륭한 덕을 행하여 부친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職分)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방광(放曠)함을 자임(自任)하여 낙락(落落)히 태연자약(泰然自若)하니,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게냐? 용백고(龍伯高)의 돈후(敦厚)함은 사람이 소홀히 하기 쉬운 바요, 두계량(杜季良)의 호협(豪俠)은 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용을 잡아 죽이고 범을 쳐 죽이는 것은 비록 그런 일을 할 때가 있기는 하나, 옥당금마(玉堂金馬)는 마땅히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광릉(廣陵)에서 꽃구경하는 복은 하늘이 주신 재능을 다한 게 아니요, 위가(魏家)에서 뽕나무를 심은 일은 실로 후손에게 명망을 남긴 것이다. 내가 일찍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 네 가풍(家風)을 하찮게 여기니, 고려(高閭)와 대문(大門)은 장차 무릎을 용납할 수도 없을 것이며 곽전(郭田)과 시장(市場)은 장차 송곳조차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끝내 어디로 가려느냐? [丈夫之降世也, 上焉怙恃, 下焉妻怒, 立揚以顯之, 鞠育以安之, 取高第行邵德, 孝於父忠於國, 卽其職分也. 今汝放曠是任, 落落自如, 將欲何爲者? 龍伯高之敦厚, 人所易忽, 杜季良之豪俠, 吾甚不願. 屠龍錐虎, 雖有其時, 玉堂、金馬, 當在人焉. 廣陵看花之福, 非是盡天之才, 魏家種槐之業, 實有垂昆之望. 汝曾不若, 蔑乃家風, 高閭、大門, 將不得容膝, 郭田、布庄, 將不得置錐, 其可不深思? 而竟將安之?](한문본, 번역 34~35면, 원문 127~128면.)

남자 세상에 나매 위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안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며, 아래로 처자를 보전함이

28) 엄태식, 앞의 논문, 107~108면.

인자의 도리거늘, 네 지금 유희방탕하여 우유도일(優遊度日)하니 장차 어찌 계량(季良)의 호협함은 내 원치 아니하노라.(국문활자본, 12면.)

모친 최부인이 서문적에게 남자로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한문본에는 두 이본을 보면 서문적의 성격은 ‘척당불구(倜儻不拘)’와 ‘우유도일(優遊度日)’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는 세상에 일을 구속하지 않고 풍류를 즐기함을 원하여 인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모친과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²⁹⁾ 국문본에도 한문본과 같은 용백고와 두계량에 대한 전고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한문본에는 『장자(莊子)』 잡편(雜篇) 「열어구(列禦寇)」에 실려 있는 ‘도룡추호(屠龍錐虎), 수유기시(雖有其時)’와 소식(蘇軾)의 「삼괴당명(參槐堂銘)」에 실려 있는 ‘위가종괴지업(魏家種槐之業)’과 『열녀전(列女傳)』 「초오릉처(楚於陵妻)」에 실려 있는 ‘불득용슬(不得容膝)’과 마지막에 『장자(莊子)』의 잡편(雜篇) 「도척(盜跖)」에 실려 있는 ‘불득치추(不得置錐)’ 등의 전고가 있는 데 반해 국문활자본에는 이 부분이 모두 삭제되었다.³⁰⁾ 여기를 보면 국문본은 한문본을 번역했으면서도 서사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고들은 대거 삭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목할 점은 국문활자본에 전고나 한시의 구절 인용 현상이 여러 군데서 발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문활자본과 한문본에는 모두 서문적과 두 명의 벗이 함께 산천을 유람하기 위하여, 변경으로부터 양주를 걸쳐 양자강(揚子江)까지 유람하였으며, 양자강에 도착하자 근처에 있는 양자서당(揚子書堂)를 구경하러 간 내용이 있다. 그러나 두 버전을 견주어 봤을 때, 오직 한문본에서만 양자서당에 관한 한 수의 시가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시구는 ‘양자담경처(揚子談經處), 회왕재주과(淮王載酒過)’이다. 이는 원래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가 지은 오언율시이고, 제목은 「종기왕과양씨별업응교(從岐王過楊氏別業應教)」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양자는 한나라 때 유학자 양웅(揚雄)이고 회왕은 회안왕 유안(劉安)을 가리킨다. 양웅이 공부한 장소가 가난함을 들었던 회안왕 유안이 술을 들고 양웅을 찾아가서 함께 즐거움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즉, 한문본에서는 이 배경 이야기를 담은 시구를 인용하여 양자서당을 더욱 입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국문활자본에서 서문적 일행은 황릉묘(黃陵廟)로 넘어가 굴원(屈原)이 자결한 맥라수(汨羅水)에 도착하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그들이 어부에게 ‘차문주가(借問酒家) 어드메뇨’를 물어봤는데, 이어져 어부가 낚싯대를 들면서 ‘행화촌(杏花村) 가리킨다’라고 답하

29) 권도경, 앞의 논문, 52면.

30) 엄태식, 『동선기 역주 및 전고 연구』, 월인, 2019, 34면.

였다. 이는 당나라 두목(杜牧)이 지은 칠언절구에서 나온 전고이고, 그 제목이 「청명(清明)」이라 한다.

이외에 서문적이 산속에서 걸어 다닌 장면이 있는데 작자가 이 장면에 관한 서사에서, 당나라 말기 가도(賈島)의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와 관련된 구절로 묘사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서사 부분은 ‘지재차산중(至在此山中)이언마는 운심불지처(云深不知處)로다’이다. 이를 통하여 세속을 초월한 인생을 추구하고 싶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한편, 한문본과 국문본의 서두에는 서문적과 친구인 장만부·최심[최염자]이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목에 다음과 같은 삽입시가 있다.

만세산 높이 몇 천 장이던가?
 남아의 굳센 기백 잉태해 내었네.
 사후 명성 생각지 않고, 눈앞의 즐거움만 취한다오.
 금대(琴臺) 가에서 절향(絶響)을 들으며,
 미인을 끌어안고 함께 담소하네.
 곡이 끝나자 손잡고 떠나가니,
 인간 세상 끝내 어드메오?

[萬歲山高幾千丈? 孕出男兒壯氣魄. 不計身後名, 適取眼前樂. 却傍琴臺聞絕響, 提抱美人共笑語. 曲終携手去, 人間竟何許?](한문본, 번역 39면, 원문 128면.)

만세산이 높음이어 몇만 장이나 되었고, 남아 세상에 처하여 불고신후명(不顧身後名)하고 다만 안전의 낙을 취하여 절대 가인을 얻어 동방화촉야(洞房華燭夜)에 희소자락(喜笑自樂)하여 옥통소로 희마는 제형의 뜻은 후세의 이름을 아끼고 목전의 즐거움을 바라지 아니하니 참 감사하도다.(국문 활자본, 13면.)

한문본에는 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국문활자본의 내용이 번역된 문장으로 실려 있다. 한문본에는 앞에 네 구절을 바탕으로 삼아 만세산을 비유하여 남자로서 굳이 명예같은 것을 중요시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뒤에 네 구절이 바로 현세에 처하여 삶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중요시하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국문활자본의 인용문을 보면 한문본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직역은 하지 않았고 한문본에 없는 내용이 대거 들어가 있다.

조대를 떠나 낚시대 내던지고 장단(將壇)에 올라 부월(斧鉞)을 쥐고서 백만대군(百萬大軍)을 거느려 한(漢)나라 4백 년 기틀을 개창(開創)한 자, 어찌 진정한 남자가 아니겠나? 그런데도 만 명을

대적할 장수로서 운몽(雲夢)의 순수(巡狩)에 굴복하였고 천금(千金)의 자질로서 아녀자의 손에 목숨을 맡겼으니, 크게 공은 있으나 심히 명예는 없도다.[辭釣圜而投竿, 登將壇而秉鉞, 擁百萬之卒, 創四百之基者, 豈非眞男子耶? 猶且萬人之敵, 屈於雲夢之遊, 千金之質, 委諸兒女之手, 大有功矣, 甚無名也.](한문본, 번역 40면, 원문 131면.)

위수의 강태공을 조대에 낚시 걸고 장대에 높이 앉아 억만군사 지휘할제 주나라 팔백년 기업을 창개하니 실로 장부 아니라오마는 오히려 위소에 고적이 적막하여 청태(靑苔)만 끼어 있고 초패왕(楚霸王)의 영웅으로도 우미인을 이별하고 강동 가기 부끄러워 오강에 자문(自刎)하고 회음후(淮陰侯)의 장재로도 괴철을 사례하고 운몽에 나아가서 아녀자에게 잡혔으니 이는 다 허명뿐이라.(국문활자본, 13~14면.)

한문본에서 인용한 것은 한신의 고사인데, 국문활자본에 언급된 것을 보면 한문본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 한문본에는 작가가 조대에 낚시를 걸은 자가 강태공인데 국문활자본에는 낚시를 걸은 자가 한신이라 하여 인물이 바뀌었다. 역사적으로 강태공은 낚시를 걸는 전고가 있는데 『武王伐紂平話(무왕벌주평화)』에 실려 있는 ‘강태공조어(姜太公釣魚), 원자상구(願者上鉤)’라고 한다. 국문활자본에 인용된 전고를 보면 전반부에서는 강태공의 전고를 인용하다가 후반 부분에 갑작스럽게 회음후 한신이 등장하는바, 이를 통해 국문활자본의 번역자는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편지는 유씨가 동선을 찾으러 가는 까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의 부모님께서 내 청춘을 불쌍히 여겨 재가(再嫁)하라고 명하시니 일이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일(某日)에 아무개에게 재가할 터인데, 모르겠습니다만 낭자는 홀로 어찌할 생각입니까? [吾父母憐我靑陽, 將命再適, 事在不免, 將於某日, 適於某人, 未知阿娘獨何爲也?](한문본, 번역 102면, 원문 174면.)

유씨의 계모는 유씨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음을 불쌍히 여겨 친족이 있는 환부(鰥夫)과 재혼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자 유씨는 절개를 지키겠다는 뜻을 동선에게 편지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에 유씨의 계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 편집자가 번역했을 때 주인공들과 상관없는 인물이어서 삭제할 것이다.

2. 국문본 「동선기」의 개작

국문활자본의 본격적 개작은 동선이 유부인과 연경에 도착한 이후부터 시작하였는데, 우선 한문본에 유씨가 집에 떠나 향주에 가서 동선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다. 인용문을 다음과 같다.

“내 이미 그 뜻을 시험해 보자 저이 또한 안심하고 내 부끄러움을 풀어주었을 뿐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 어찌 이른바 동선이겠는가? 이 편지를 보니 그녀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잘 알겠다.” 마침내 사랑하는 여종인 추은(秋恩)과 함께 몰래 탈출해 길을 떠났다.[“我既試其意, 彼亦安心釋我愧耳. 否則豈所謂洞仙乎? 觀於此書, 益知其可愛者也.” 遂興幸婢秋恩, 潛脫作行](한문본, 번역 102~103면, 원문174면.)

위에 인용문은 유씨가 동선한테 답장을 받고 추은와 향주로 가서 동선을 찾는 내용이다.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의 내용이 한문본과 전혀 다른 것이다. 다음에 국문필사본의 내용이다.

초설 뉴씨 선을 이별하고 효진으로 더브러 서로 의지하여 손꼽아 선에 오기를 고디하더니 세월이 훌훌하여 슈월이 지나되 음신이 돈절하고 어안이 격쵸하니 뉴시 효진다려 왈 “지금 선낭에 오는 소식이 없스니 반다시 절기를 직케려 헝다가 옥이 바야지고 쫓치 썩러졌또다 제가 솔라스면 알을 발일 인물이 아니라 니 맛당이 차저가 보리라(국문필사본, 35~36면.)

국문필사본에는 동선이 향주로 돌아간 후 세월이 지나갔는데 소식이 전혀 없으니 유씨가 걱정하였다. 그래서 시비 효진과 향주로 가기로 했다. 인용문을 다음과 같다.

각설, 유씨 동선을 이별하고 주소(晝宵)애절하더니, 일일은 홀연 꿈을 꾸니 동선이 전신에 피를 흘리고 문 앞에 섰는지라. 깜짝 놀라 잠을 깨어 이리저리 궁구하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길조가 아니라. 유씨 마음을 진청치 못하다가 곧 효진을 불러 행장을 수습하여 동선을 찾아 향주로 발정(發程)하여 여러 날 만에 동선의 집에 당도하니 공교히 이 날이 동선의 입관성빈(入棺成殯)하는 날이더라.(국문활자본, 78면.)

국문활자본에 유씨가 꿈을 통하여 동선이 전신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양을 보고 잠을 깨어 시비 효진과 짐을 수습하여 향주에 있는 동선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다. 여러 날 만

에 드디어 항주에 이르러, 동선의 집을 찾아가니 마침 동선이 안기에게 중형을 당하여 입관하는 날이다. 다음에는 한문본의 인용문이다.

안기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여 이에 상구(喪具)를 잘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나흘째 되던 날에 염습(斂襲)하고 입관(入棺)하였는데, 이날 시령 위의 거문고가 스스로 소리를 내며 곡조를 이루니 화기(和氣)가 피어오르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이튿날 포시(晡時)에 두 여인이 문 앞에 당도하였으니, 곧 유씨와 추은이었다. 이들은 동선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곧장 들어가 관을 어루만지고 크게 애통해하면서 말했다.[安琦聞而哀之，乃大治喪具以與之。第四日，襲入棺，是日架上彈琴，自鳴成曲，和氣發越，衆咸異之。翌日晡時，有二女到門，乃劉氏及秋恩也。聞仙已逝，經入拊棺，大慟之曰:](한문본, 번역 103~104면, 원문 175~176면.)

동선이 안기의 수청함을 거절할 수 없어서 자살했다는 내용이다.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 한문본에는 동선이 자살하는 이유는 뒤에 서문적의 조상인 만세산신(萬歲山神)과 만나기 위해 복선을 둔 것이다. 앞 내용과 다르게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에는 동선이 가짜 사망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선이 점두하고 정신을 차려 심각하되 안기에 욕을 면하기 빅계무척이라 문득 일계를 심각하고 어미다려 일너 왈 “니제 소녀가 죽었스 하오면 일정 흥인이 빅단으로 붓치리니 어인 쇼견에는 쇼여을 죽스 하고 춘운으로 발상하며 과곽을 갖초와 거죽 관으로 엄빙하여 악인에 엄예을 쫓치 후에 쇼여난 유벽청 숨엇스가 엄장 후에 춘운을 다리고 뉴쇼군을 츠즈가 한가지로 연옥에 나아가 가군에 해골을 거두어 선영에 안장하고 죽을인니 바라건디 모친은 명조에 초상 괴구를 츠리쇼셔(국문필사본, 35면.)

선이 점두(點頭)하고 정신을 차려 그 모더러 이러왈, 여식이 아무리 하여도 안기 욕을 면키 어렵사오니 이제 소녀가 죽었다 하고 거짓 춘운을 발상(發喪)시켜 관곽(棺槨)을 갖추어 헛장사를 지내고, 그 후에 소녀는 춘운을 데리고 유소군(劉小君)을 찾아가 한가지로 가군 해골을 거두어 선영에 안장하고 죽고자 하오니 모친은 명조에 초상 제구를 차리소서.(국문활자본, 77면.)

국문활자본에는 동선이 안기가 서문적에게 모해함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여 “내 아무쪼록 죽지 말고 살았다가 가군의 원수와 나의 고초 받는 한을 풀어 보복하리라”라는 말을 하며 안기가 크게 화를 내어 동선한테 형벌을 사용하였다. 이때 동선이 가짜로 사망하는 소식을 보내어 발상하였다. 이어서 국문필사본의 내용과 국문활자본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 다음에는 동선이 유부인과 연경 옥에 있는 서문적을 찾는 도중에 친구인 장만부과

만나게 되는 내용이다.

40일째 되던 날에 한 곳에 이르렀다가 문득 장만부(張萬夫)를 만나 매우 기뻐하여 사정을 이야기했다.[第四十日, 至一處, 忽逢張萬夫, 喜甚, 告以情事.](한문본, 번역 114면, 원문182면.)

수십여 일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읍중이오 목사는 장만부라 허거늘(국문필사본, 40~41면)

노주 사인이 승야발정하여 평명에 한 곳에 다다르니 읍중이 즐비한지라 토민더러 지명을 물으니 대왈 이곳은 소주 읍중이요 목사는 장만부라 허거늘(국문활자본, 79~80면.)

동선이 서문적을 구하려고 항주에서 연경으로 향하는 대목이다. 동선과과 유씨 시비 2명, 일행 4인이 항주를 출발하여 한문본에서는 40일만에 도착하였는데 국문필사본에는 “수십 여 일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라고 하였다. 국문활자본에서는 밤에 출발하여 아침에 바로 도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실 항주에서 연경까지 거리가 천리(千里)가 넘으므로, 며칠 만에 바로 도착할 수 없다. 한문본과 국문필사본에는 각자 40일 혹은 수십 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문활자본에는 밤에 출발하여 이튿날 바로 도착했다고 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문활자본의 내용보다 한문본과 국문필사본의 내용이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한문본에 부정적인 인물인 호손달희가 등장하는데, 국문필사본에는 달이라고 한다. 국문활자본에는 이 인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호손달희는 동선의 미색에 빠져 서문적의 친구인 장만부에게 이 사정을 말하였다. 한문본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장만부의 동료 가운데 호손달희라는 자가 있었는데 영걸(英傑)한 사람이었다. 장만부가 전란 뒤에 서로 결탁해 교분을 맺었는데 그와 이야기하면서 동선을 매우 칭찬하였다. 호손달희가 동선 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천하에 보지 못한 미색(美色)을 만나보고 싶네.” 장만부와 말했다.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저녁이 되자 동선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마침 변변찮은 음식이 있어 더불어 위로의 자리로 삼고자 하는데, 오실 수 있는지요?” 동선이 감격하여 즉시 갔다. 잠시 후 들으니, 문지기가 종종걸음으로 나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호손사군(胡孫使君)께서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장만부가 동선에게 말했다. “저이는 나와 교분이 두터우니 무슨 꺼릴게 있겠습니까?” 마침내 명하여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 술이 나오자 장만부가 스스로 잔을 들어 동선에게 권하니, 동선이 절을 하고 받았으나 잔이 커서 다 마시지 못하고 소진에게 물려주었다. 호손달희의 차례가 되자 호손달희가 술을 마시면서 동선을 가리켜 말했다. “소남자가 먼 길에 고생하셨으니 특별히 술을 권합니다.” 동선이 절을 하고 받지 않으면서 말했다. “마침 장사군께서 불

러 주셨기에 황송하고 감격하여 왔을 뿐, 본디 술을 잘 마시지 못합니다.” 그대로 나가 버리니, 호손달희가 장만부에게 만류하도록 부탁하였다. 장만부가 말했다. “안 되네. 금석(金石)처럼 견고하고 상설(霜雪)처럼 결백하여 더럽힐 수 없으니, 다만 면목(面目)을 보것만으로도 충분하네.” 호손달희가 탄식하며 말했다. “대장부로서 이런 여자를 얻지 못한다면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다.” 이튿날 아침에 동선이 길을 떠나기를 청하자 장만부가 말했다. “전일(前日)까지는 마침 셋길을 경유(經由) 하였으므로 실이 막힘이 없었지만, 여기로부터 북쪽으로는 역로(驛路)가 아니면 연경(燕京)에 도달할 수 없고 철기(鐵騎)가 아니면 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 기병(騎兵)을 내어 호송할 터이니, 기다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선 일행이 서로 함께 위로하고 기뻐하며 말했다. “이번 길에 만약 장사군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나?” 이날 밤, 일행이 편히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문득 매우 다하게 말달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대낮처럼 환하였다. 동선 등이 잠을 자다가 놀라 깨어나서 보니 한 무사(武士)가 달려들어 동선의 손을 붙잡고는 성화(星火)처럼 급히 끌고 나가는 것이었다. 동선이 손에 이끌려 나가니, 곧 호손달희였다. 그의 관사(官舍)에 도착해서 보니 활과 검, 창과 도끼 등을 좌우에 엇걸어 놓았다. 동선이 급히 도끼를 잡고서 자기의 손을 베어 호손달희의 이마에 내던지면서 말했다. [張之同僚胡孫樾嬉者, 英傑人也. 張自亂后, 相結爲契, 相與語, 極道洞仙, 樾喜聞之曰: “願接天下所未見之色.” 張曰: “有何難哉?” 至夕, 送人於仙曰: “適有薄具, 欲與慰沃, 其肯來未?” 仙感而即到. 俄聞闔者趨進曰: “胡孫使君在門”, 張謂仙曰: “彼與我契後, 何嫌之有?” 遂令許入. 酒進, 張自舉杯以侑仙, 仙拜受之, 酌大不能卒, 退與小真. 次及樾嬉, 樾嬉飲且指之曰: “小娘子遠勞, 特酬之.” 仙拜而不受曰: “適以張使君委召, 惶感而來耳, 本未堪飲.” 仍出, 樾嬉囑張挽留. 張曰: “未可也. 堅如金石, 皎如霜雪, 未可相瀆, 但見面目, 足矣.” 嬉咄咄曰: “大丈夫不得此, 天下之棄物也.” 翌朝, 仙請行. 張曰: “前日所經, 適由間路, 故得無其梗, 自此以北, 非驛路, 則不得到燕, 非鐵騎, 則不得過驛, 吾當出騎護送, 待之如何?” 仙一行, 相與慰喜曰: “此行, 若不遇將士軍, 當奈之何?” 是夕, 一行穩頓牢睡, 忽聞馳突之聲甚急, 火光如畫. 衆睡驚覺, 見一武夫驟入, 拿洞仙之手, 星火曳出. 仙隨手而出, 乃樾嬉也. 到其館, 見弓劍, 戈斧之屬, 交置左右. 仙及引斧, 斬其手掌, 以抵樾嬉之額上曰:](한문본, 번역 114~116면, 원문 183~184면.)

인용문의 앞에 부분에 보면 장만부가 호손달희와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동선이 아름다운 다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장만부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청하였다. 이어서 장만부가 술자리를 마련하여 동선을 초대하였다. 모임을 끝나고 밤에 되어 호손달희가 동선이 쉬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동선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가 강포한 짓을 하였다. 동선이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도끼로 자기 손을 베어 호손달희의 이마에 내던졌다. 여기를 보면 하나는 이후에 서문적을 구하기 위하여 복선을 깔아 놓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동선의 열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³¹⁾ 다음은 국문필사본의 해당 대목이다.

31) 엄태식, 앞의 논문, 142면.

넋씨에 강도 선을 겁취하여다가 달의에 방중에 엇코 각각 헛터져던니이라 초 쇼위 우물에 든 고
 기오 함정의 든 범니라 달의 희불조승하여 촉을 받키고 조셔니 본니 혼절하여날 달희 디경하여
 회싱산을 써 슈물르니 반향 후 정신을 하여 살펴보니 벽상에 증금이 결여져날 그제야 이러나 검
 밋티 나가 안즈며 노목이 등등거날 달의 황망이 가로디 니 평싱 당디절령을 사모하든니 우연니
 그디 옥안화타를 잠간 디히미 증부에 풍경을 참지 못하게 하기로 반야삼경에 그 디을 겁취하니 이
 은 광봉낭접이 투향함 갖튼지라 바라건디 낭조은 날노 하여곰 곳자은 향기를 한번 소니게 호오면
 싱즉동규하고 스즉동혈하여 화당금누에 빅연히로하린니 웃지 속절읍슨 셔싱을 위하여 말이 흠노에
 분주하며 화당금누에 빅연히로하린니 웃지 속절읍슨 셔싱을 위하여 말이 흠노에 분주하며 흥안취
 미 일노 쇼쳐 늘그리오 싱에 광피흔 죄을 용서하고 금일 당당니 원앙에 정을 미줄이라 하고 다려
 드려 선에 옥슈을 잡고 친합고져 하거날 선이 얼썩 증금을 취하여 잡은 손을 짝은이 달의 놀나 노
 코 물너 안진니 선이 칼을 드러 바로 달의을 썩으려 달려드니 달의 혼비백산하여 달어나거날 선이
 칼을 들고 박게 나간니 인적은 고요하디 춘운 효진니 울며 오난지라 선니 반겨 무로이 양 시이 희
 hing하여 붓들고 스쳐로 도라와 부인에 놀나물 위로코져 방중에 들러간니 뉴씨 혼절하여 놓고 이지
 못하여 불승인스에 죽은 듯한지라 삼인니 붓들러 분주할 썩 안니라 창망구호하여 언미필에 선낭에
 팔니 뉴혈리 낭조하거날 양 시비 크게 놀나 살펴본니 칼노 팔을 썩어 만니 상한지라 겁을 써져 스
 미고 부인을 구하든니 뉴씨 반향 후에 인스를 초려 살펴본니 삼인니 안져거날 급피 니러나 붓들고
 곡져을 무르니 선니 탄식디왈 썩 강포을 다시 만나면 연국에 득달치 못하고 노중에서 죽을가 하난
 니다 뉴씨 놀나 상처을 본니 과연 썩이 상하여져날 더욱 상감하물 니기지 못하여 분한절치하니(국
 문필사본, 52~55면.)

이 부분은 한문본과는 좀 다르지만, 한문본을 바탕으로 삼아 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한문본과 국문필사본이 대략적인 내용은 호손달희가 동선을
 강포하려고 했는데 한문본에는 동선이 도끼를 사용하여 자기 손을 베어 호손달희의 이마
 에 던졌다. 동선이 자기의 손을 호손달희에게 던지는 이유는 나중에 서문적을 찾을 때
 큰 도움으로 설정된 복선으로 생각해도 된다. 국문필사본에는 동선이 칼을 들어 달에게
 달려드는데, 달은 밖으로 도망한다. 이에 국문필사본에는 이 부분을 존재하는 이유는 혹
 은 국문필사본의 작가가 이 부분 내용이 매우 흥미로워서 독자의 시선을 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삭제하지 않고 서사 내용을 좀 고치고 번역했다. 그리고 국문필사본에 동선이
 달에게 붙잡힌 손을 보고 칼로 자신의 손까지 자른 장면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결말 부분
 도 한문본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국문필사본이 한문본의 개작본으로
 창작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문활자본에는 이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
 다. 이를 보면 또한 국문활자본의 작가가 작품을 창작했을 때 이 부분이 결말과 연관성

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주장이 있어 삭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문활자본에서 동선이 남장을 하고서 시비 춘운과 함께 연경에 가서 등문고를 올리는 장면이다.

선이 일습 남자의 옷을 바꾸어 입고 춘운을 데리고 표연히 길에 오르니, 일개 아녀자로 금석 같은 절개를 지켜 부귀를 초개같이 여기며 죽기를 부운(浮雲)같이 알아 자사(刺史)의 위엄에도 승복치 아니하고, 만리 연경을 지척같이 여기며 황성(皇城) 원로를 이웃같이 알아 가부(家夫)를 신원(伸冤)하고 인기를 박살하니 국가의 충신이요 일가의 절부라. 소소한 아녀자로 총질이 쌍전(雙全)하니 가히 금석에 새겨 천추에 유전하염즉하더라.(국문활자본, 106면.)

국문본에는 동선과 시비 춘운이 함께 남장을 하고 연경에 가는 장면과 다르게 한문본에는 유부인과 시비 4인이 연경에 향하였다. 이어져 한문본에는 연경에 도착하여 바로 악무목 장군이 여진군과 싸우니 승리하였다.

악무목이 오백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변경에 들어가 크게 싸우니 일당백(一當百)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북군(北軍)이 대패(大敗)하고 장차 다시 싸우려 하면서 급히 본진(本鎭)의 장졸(將卒)들을 불러 병세(兵勢)를 더하려고 하는데, 본진이 덩 비면 옥에 갇힌 남인(南人)들이 필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두려워하여 속히 전부 베어 버린다고 합니다.[岳武穆將兵五百, 入汴大戰, 無不一當百. 北軍大敗. 將復之, 急招本鎭將卒, 以益兵勢, 旋恐本鎭一空, 則南人繫獄者必叛, 從速盡數斬之云.] (한문본, 번역 120~121면, 원문 189면.)

남송에 악무목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간신 진회(秦檜)에게 모해함을 당하여 옥에 갇히고 죽었다. 한문본에 이 인물이 등장한 이유는 작품의 배경이 송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조 인물을 끌어온 것이다. 악무목은 여진군을 물리치며 간접적으로 서문적을 구출하는 보조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한문본에는 이 장면까지 작품이 거의 끝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국문필사본에 남아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악무목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소참정 일가가 출현하는 것임을 의조하여 혹시 국문필사본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도 과언이 아니다. 국문활자본에서는 이 인물이 아예 삭제되었다. 악무목이 대신에 소참정 일가가 보조인물로 등장한다. 한문본의 악무목은 잠시 출현하는데 반해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에서는 소참정 일가에 관한 내용이 작품 안에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다음에는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에서 소참정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장면이다.

이곳은 쇼참정 덕 부등이니 옛날 참정 벼슬하던 쇼경운이니 쇼연등과하여 옥당화원에 거히미 청
 렴증직하며 이인호스하니 성상이 기리시고 쇼야 흥경한 비로되 빅슈 풍진에 벼슬이 불가한 고로
 세 번 상쇼하여 벼슬을 갈고 고향의 도라와 일좌 디가을 창기하니 뫼을 쓴어 디을 못고 물을 인하
 여 지당을 습으며 창송녹죽으로 울을 습고 기화요초로 쓸을 습의미 각각 향긋 읍□하고 야슈산곰
 은 녹음방초 스니에 씨로 스시를 보호난지라(국문필사본, 65면.)

원래 그곳에 있는 집은 쇼참정(蘇參政)의 부중이니 옛날 참지정사(參知政事) 쇼경운(蘇慶雲)의
 후예러라. 쇼년등과하여 벼슬이 옥당한원(玉堂翰院)에 이르니, 청렴증직하여 성상이 기리시고 쇼야
 가 흥경(欽敬)하나 마음이 일상에 한아(閑雅)함을 좋아하므로, 일일은 벼슬을 하직하고 고향에 돌
 아와 산을 끊어 대(臺)를 모으고 물을 인(引)하여 지당(池塘)으로 삼으며 송죽으로 울을 이루고 미
 록(麋鹿)으로 벗을 삼으며, 낮이면 서창의 백운을 점검하고 밤이면 동령(東嶺)의 명월을 완상(玩賞)
 하니, 한가한 재미와 무궁한 흥치 다시 비할 데 없으나.(국문활자본, 88면.)

국문본 두 이본에 쇼참정의 배경에 관한 내용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국
 문필사본의 경우는 중간 부분에 쇼참정이 하직하려고 세 번이나 상소하여 고향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국문활자본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뒤의 정원에 관
 한 서술은 국문필사본이 국문활자본보다 더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래서 국문본 두 이
 본에 관한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문필사본의 내용이 국문활자본의 내용
 보다 필치가 더 뛰어나다. 국문활자본이 한문본보다 서사 전개를 더 풍부하게 보인다.
 다음에는 동선이 연경에 도착하여 어떻게 서문적을 구해주는 내용이다.

향주자사 서문적은 돈수백배하옵고 일봉표문(一封表文)을 만세황야탑하(萬歲皇爺榻下)에 올리옵
 나이다. 신이 본디 변경 천인으로 지식이 천단(淺短)하옵거늘, 순무(巡撫)의 초천(招薦)함을 입사와
 군중종사(軍中從事)에 참여하였습다가 요행 폐하의 흥복으로 적국을 달래어 화친하오매 첩서를 올
 리옵고 칙교(勅敎)를 고대하옵더니, 천만 뜻밖에 소인의 참화를 입사와 성상의 성총(聖聰)을 가리
 와 공은 허도로 돌아가 몸은 누항(陋巷)에 떨어질 줄을 알리이까. 군명(軍命)이 지엄하옵기로 현모
 의 얼굴도 뵈옵지 못하옵고 바로 연경(燕京) 만리에 고고일신을 던져 한번 집을 떠나오매 음신(音
 信)이 돈절하오니, 복해의 구름과 남천의 기리까. 세구연심(歲久年深)토록 부모의 망극지은을 갚지
 못하옵고 연옥 귀신이 되음을 상하옵고 있삽더니, 천은이 망극하와 죽을 목숨을 구하옵시니 불승
 황공하온 중 다시 소소하온 공을 굶어 살피사 중임을 맡기시니 신의 무재박덕(無才薄德)으로써 어
 쨌 감당하오리까.(생략...)(국문활자본, 119면.)

위에 인용문을 동선이 황상께 ‘일봉표문’을 올리는 내용이다. 동선이 등문고를 올리고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동선이 소참정의 도움으로 이 부분은 한문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 다음에는 한문본의 결말 내용이다.

그런데, 그때 문득보니, 어떤 손이 상류(上流)에서 떠내려오더니 시신 무더기 옆에 이르러 두더기 속으로 파고들어 시신의 손을 붙잡는 것이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이 서로 손을 잡는 것 같았다. 동선이 달려가서 보니, 금가락지 한 쌍이 아직도 그 무명지(無名指)에 끼워져 있었다.[忽見手掌從水上浮下, 便到積屍旁, 穿入積中, 着執尸手, 一如生人相執手矣. 仙趨而觀之, 有春金指環一雙, 尚着其無名指.] (한문본, 번역 122면, 원문 191면.)

한문본에는 서문적이 죽을 줄 안 동선이 자살하려다가 시냇가 옆에 금반지를 통해 서문적의 시신을 확인하게 된다. 서문적을 구해서 살리게 되어 동선이 유부인과 향주로 돌아갔다.

다음은 동선이 일행을 거느리고 도죽산으로 은거하는 장면이다. 먼저 한문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선이 일행을 거느려 각각 배 하나에 탔는데, 그 나머지 따라온 자들은 발을 대자마자 곧 가라앉아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었다. 그 배들이 바람을 따라 스스로 움직여 하루가 채 못 되어 이미 바다를 건너가니, 그것들은 곧 대나무 잎이었다. 배를 버리고 물에 올라 비로소 그 산으로 들어가니, 산은 높아 하늘에 닿았고 그 둘레는 만리나 되었다.[洞仙領一行, 各乘一船, 其餘從來者, 着足旋沒, 不可濟也. 其舟隨風自行, 不日既濟, 則乃是竹葉也. 舍之而陸, 始入其山, 山高插天, 其圍萬里.] (한문본, 번역 124면, 원문 194면.)

한문본의 결말은 동선이 서문적을 구하고 나서 향주에 돌아가 가산과 노자를 일일 다 준비하고 대부인(大夫人)을 제사하고 나서, 서문적과 바다에 있는 도죽산으로 들어갔다. 이와 중에 동선이 연경으로부터 따라온 구걸자들과 함께 도죽산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발을 대자마자 바로 가라앉으니 동선과 함께 바다로 건널갈 수 없었다.

다음은 위에 해당하는 국문활자본의 결말 부분이다.

이러구러 수삼삭이 되매 음영(音影)이 돈절하니 유씨 자아(子兒)를 보내어 도죽산에 들어가 사방 심방하나 다만 선인의 노는 자취뿐이요, 종적을 찾을 곳이 없는지라 하릴없이 돌아와 훌훌(倏忽)한 관음이 어언간 십여년 지나니 그 우화등선(羽化登仙)함을 알겠더라. 유씨 여러 자녀를 데리고 사당을 도죽산에 세우고 사시향화(四時香火)를 받들게 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천추에 전하니다.(국문활자본, 140면.)

국문활자본의 결말에서 서문적이 세상에 부귀공명(富貴功名)을 모두 누리며, 두 명의 처와 세 명의 첩까지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도 낳고,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 결국 가족들에게 재삼 당부하여 동선과 도죽산으로 들어갔다. 이어져 십여 년에 후에, 유씨의 아들이 유씨의 명을 받아 도죽산에 들어가 사라진 서문적과 동선을 찾으려고 했는데, 끝내 찾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에 결말 처리 방식을 견주어 보면, 한문본에 구걸자들이 도죽산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임을 보면, 도죽산이 선산(仙山)이라 생각하여 범인(凡人)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다. 만약 다른 시각으로 보면 동선과 서문적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통해 보면 둘이서 죽었다는 뜻도 있다. 국문활자본에는 동선과 서문적이 인간세상에 수십 년 생활한 후에 도죽산에 들어가 우화등선했다. 한문본과 국문활자본의 결말 부분에서는 결과는 일치하지만 서사 전개는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세 이본의 번역 양상과 개작 양상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한문본을 바탕으로 하여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의 내용이 빈번하게 삭제하거나 추가한 것이다. 전반부에 내용이 거의 같지만 중간부터 개작함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문본에 있는 부정적인 인물이 호손달희[달]이 동선을 강포하려고 했는데, 동선이 호손달희[달]에게 붙잡힌 손을 베어 떨어진 이후에 서문적을 구할 때 중요한 복선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국문필사본에는 동선의 손을 찌기만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면 국문필사본에 결말 내용이 한문본과 다를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국문활자본의 경우에는 호손달희[달]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결말 부분과 연관성이 없어서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에 인물들이 추가함을 따라 플롯도 증가하였다.

이상으로 종합해 보면 세 이본에 동선이 서문적과 사랑한 이야기함을 일치한다. 한문본이 국문활자본과 비교해 보면, 국문활자본에 동선이 서문적과 더 사랑에 중점을 두어 보인다. 이어져 국문활자본의 편집자가 한문본과 국문필사본을 참고하면서 독자층을 고려하여 높게 심도가 있는 내용이 삭제하여 즐겁고 통속적인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3. 조선 후기 소설의 영향

1) 「구운몽」의 수용 양상

여기에서는 국문본 「동선기」에 「구운몽」이 수용된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운몽」은 남주인공 성진이 팔선녀를 희롱하여 벌을 받아 적강해 양소유로 태어나 팔선녀의 화신인 2처 6첩과 결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국문본에서는 서문적이 설영과 만나고 인연을 맺는데, 설영을 통해서 강남삼절색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구운몽」에서도 양소유가 계섬월과 인연을 맺고서 계섬월을 통해 청루삼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³²⁾

서방님의 말씀은 우물 안 개구리 같군요. 제가 우선 우리 기녀들의 공론(公論)을 서방님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천하에 ‘청루삼절’(靑樓三絶)이란 말이 있으니, 강남(江南)의 만옥연(萬玉燕), 하북의 적경홍(狄驚鴻) 낙양의 계섬월을 말합니다. 섬월은 곧 저이니 저는 요행히 허튼 명성을 얻은 것이지만, 경홍과 옥연은 당대(當代)의 절세미인이거늘, 천하에 어찌 미인이 없겠습니까?(구운몽, 69~70면.)

낭군의 말씀과 같을진대 무엇을 다시 근심하오리까. 다만 강남(江南) 절색에 세 사람이 있사온대, 일인은 항주 동선(洞仙)이요, 일인은 소주 경량(景量)이요, 일인은 양주(揚州) 설영이라 하오나 첩은 실로 허명을 들었거니와, 저 두 사람은 당세 경국(傾國)이라. 낭군이 응당 각각 만나실 것이니, 만나신 후라도 오늘날 첩에게 맹약하신 말씀을 저버리지 마옵시면, 첩이 비록 분골쇄신이 될지라도 사양치 않사오이다.(국문활자본, 24면.)

「구운몽」의 계섬월, 만옥연, 적경홍이라는 기녀는 국문활자본의 설영, 경경, 동선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절대가인(絶代佳人)이고 경국경성(傾國傾城)이다. 그리고 계섬월, 만옥연, 적경홍이 청루에서 사람들이 ‘청루삼절’이라 칭하였고, 설영, 경경, 동선이 ‘강남절색’이라 한다. 국문활자본이 「구운몽」을 참조하여 수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서문적이 항주 자사로 임하여 처첩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하였다.

「구운몽」을 보면 양소유가 정경패를 만나기 위하여 여장을 입고 정부에 가서 연주하는데, 정경패가 양소유에게 속은 것을 알고 가춘운을 선녀로 분장시켜 양소유를 속이는 장

32) 본고에서 「구운몽」이 정길수의 번역본을 대본으로 한다. 인용 시에는 작품명과 면수만 표시한다. 정길수 역, 『구운몽』, 돌베개, 2017.

면이 있다. 양소유가 가춘운을 만나는 대목 역시 국문본 「동선기」에 수용되었다.

종남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우리 집 산장은 동성에서 지척에 있지만 깊고 그윽한 경치가 인간세계 같지 않다. 이곳에 춘랑의 화촉을 놓고, 십삼 오빠와 함께 이리이러하게 하면 양랑을 속일 수 있을 것야.(구운몽, 110~111면.)

수일 성중에 두류하여 경내를 구경하고, 다시 산경(山景)을 탕하여 심수(深邃)한 곳에 당도하니 이곳은 도죽산이라. 산길을 따라 점점 올라가니 창송녹죽(蒼松綠竹)은 좌우에 울울하고 기화요초는 전후에 총잡(叢雜)한데, 수목 사이로 수간화간(數間畫閣)이 반공에 솟았으니 은은한 지취(旨趣) 선경(仙境)이 분명하더라.(국문활자본, 31면.)

위의 인용문은 「구운몽」에 정경패가 양소유를 설욕하기 위해서 가춘운을 선녀로 분장시켜 종남산에 있게 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종남산은 경치가 너무 그윽하여 인간세계 아닌 것 같다. 국문활자본에서 도죽산은 항주 경내에 있는데, 산경이 너무 심수하여 선경 같다고 하였다. 국문활자본이 개작자가 「구운몽」을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처소 배치와 관련된 장면이다.

정당의 이름은 경복당(慶福堂)으로 류부인의 처소이다. 그 앞의 연희당(燕禧堂)은 좌부인(左夫人) 영양공주(榮陽公主)(정경패)의 처소이다. 경복당 서쪽의 봉소궁(鳳簫宮)은 난양공주이 처소이다. 연희당 앞의 응향각(凝香閣)과 그 앞의 청하루(淸霞樓) 두 집은 양소유가 평상시 거처하며 궁중에서 잔치하는 곳이다. 청하루 앞의 최사당(催事堂)과 그 앞의 외당(外堂)인 예현당(禮賢堂) 두 집은 양소유가 빈객을 만나고 공무를 보는 곳이다. 봉소궁 앞의 희진원(希秦院)은 숙인(淑人) 진채봉의 처소이다. 연희당 동남쪽의 별당은 이름이 영춘각(迎春閣)으로 가춘운의 처소이다. 청하루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작은 누각이 있는데, 푸른 창과 붉은 나간이 지극히 화려하고 행랑이 두루 통하여 청하루와 응향각으로 이어졌다. 동쪽 누각은 산화루(山花樓), 서쪽 누각은 대월루(待月樓)로, 각각 계섬월과 적경홍의 처소이다.(구운몽, 293~294면.)

자사 수명(受命)하고 길일을 가리어 성대한 혼식(婚式)으로 대례를 이루기로 정하고 자사 비로소 각각 처소를 정할새 정당(正堂) 옥순각(玉淳閣)은 숙부인 유씨가 처하고 벽운당은 소저, 침향각(沈香閣)은 총렬의 처소를 정한 후.(국문활자본, 125면)

국문활자본의 경우, 「구운몽」처럼 섬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구운몽」을 수용한 것임은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문활자본과 「구운몽」의 서사 전개, 인물 설정, 배경 구조 등을 통해서 두

작품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국문활자본의 작자가 작품을 창작했을 때 「구운몽」 안에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채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춘향전」의 수용 양상

여기에서는 「춘향전」이 국문본 「동선기」에 수용된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시대 영조에서 순조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현전하는 「춘향전」은 ‘기생계’와 ‘비기생계’로 구분할 수 있다.³³⁾ ‘기생계’ 춘향이 원래 기생인 것이 설정되어 있고 ‘비기생계’ 춘향이 모친 월매가 기생인데 서녀(庶女)로 태어나 당시 사회에서 계통을 계승해야 하며 신분이 낮아졌다. 본고에는 「동선기」와 같은 장르에 속한 조선 후기 소설 작품을 「춘향전」과 유사점을 찾고 비교하여 분석하겠다.

「춘향전」은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기녀 월매의 딸 춘향의 사랑 이야기다. 첫 만남에는 이몽룡이 시종 방자와 광한루에서 우연히 춘향과 만나게 되었다. 그때 이몽룡이 방자를 시켜 춘향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초대를 받은 춘향이 싫다고 가지 않았다. 그 날 밤에 이도령이 춘향을 찾아 둘이서 인연이 맺는다. 둘이서 사랑을 빠졌는데, 마침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승진하게 되어 따라서 가야 한다. 춘향을 데리고 같이 가고 싶은 이몽룡이 춘향이 기생 신분이므로 함께 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과 한양에서 장원으로 급제하면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때문에 둘이서 부득이 이별하게 되었다. 한편 남원으로 부임한 신임 사또가 변학도는 여색을 좋아하여 춘향이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수청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도령과 사랑의 맹세를 지킨 춘향이 수절하기 위하여 그를 거절하고 옥에 갇혔다. 이어서 서울에 올라간 이몽룡이 드디어 문과에 급제한 뒤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찾으러 온다.

국문활자본을 보면 서문적이 항주자사가 되어 힘이 없는 경경을 구해주는데, 이 부분은 「춘향전」과 서사 전개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문본에서 설영은 소주에 가서 경경과 상의하여 함께 불원천리하고 연경으로 서문적을 찾아가기로 했다. 마침 소주자사가 파직되고 새로 자사가 부임하는데, 그는 본디 여색을 좋아하여 행수(行首)을 통하여 설영·경경·동선이 얼마나 미인인지 알게 되었고 서문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게

33) 박희병,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415면.

되었다. 그런데 이 3인이 서문적을 위해 절의를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노하여 관차(官差)에게 경경을 잡으라 명하였다. 이때 마침 설영과 경경이 남자로 변장하여 연경으로 향하려고 하였는데, 관차가 도착해 소주자사의 명을 경경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경경은 관차와 함께 관부(官府)로 가서 소주자사와 만났다. 소주자사가 경경에게 재삼 수청하라고 권하였으나 경경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상 살펴본바 국문본에 나타나는 경경과 소주자사의 이야기는 「춘향전」의 춘향과 변학도의 이야기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춘향전」과 국문본에는 동일한 문구가 인용되어 있기도 하다.³⁴⁾

충신불사이군이요, 열불경이부절을 본받고자 하옵는데, 수차 분부 이러하니 생불여사(生不如死) 이옵고 열불경이부(烈不更二夫)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춘향전, 95면.)

첩은 듣사온즉, 충불사이군(忠不事二君)이요 열불사이부(烈不事二夫)라 첩이 이미 몸을 서생에게 허하여 삼종지탁(三從之托)을 굳이 정하였거늘 어찌 일편단심은 고치지 못하리로소이다. 복망(伏望) 노야는 애홀지택(愛恤之澤)을 드리우사 첩의 지극 진통함을 살피사 하해지량(河海之量)을 바라나이다.(국문활자본, 132면.)

국문활자본에서는 설영과 경경이 세월을 흐르면서 서문적의 소식을 몰라 찾으러 가려고 할 때 바로 소주자사가 부임하였다. 호색지도(好色之徒)인 소주자사가 강남삼절색 가운데 소주에 있는 결색인 경경의 미모를 들어보고, 수청하라고 명을 내렸다. 명을 거절하는 경경이 절의를 지키려고 자사에게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녀불경이부절’이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은 「춘향전」에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녀 경경을 열녀인 기녀 춘향과 대비시킴으로써 열녀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문활자본에는 소주자사가 나온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등장하는 장면과 유사하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이때 소주자사(蘇州刺史) 파직하고 신관이 도임하니 차인(此人)은 본디 호색지류(好色之留)라.(국문활자본, 129면.)

이때 수삭 만에 신관 사또 났으되 자하골 변학도(卞學道)라 하는 양반이 오는데, 문필도 유여하고

34) 본고에서 인용한 「구운몽」이 이석래의 번역본을 대본으로 한다. 인용 시에는 작품명과 면수만 표시한다. 이석래 역, 『춘향전』, 종합출판범우, 2009.

인물 풍채 활달하고 풍류 속에 달통하여 외입 속이 넉넉하되 한갓 흠이 성정(性情)이 괴팍한 중에 사증(邪症)을 겸하여 혹시 실덕(失德)도 하고 오결(誤決)하는 일아 간다(間多)고로 세상에 아는 사람은 다 고집불통이라 하겠다.(춘향전, 82~83면.)

다음은 국문활자본에서 황상이 동선에게 충렬부인을 봉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춘향전」의 내용을 차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충효열녀 상하 있소. 자상히 듣조시오. 기생으로 말합시다. 충효열녀 없다하니 날날이 아리리다. 해서(海西) 기생 농선이는 동선령(洞仙嶺)에 죽어 있고, 선천(宣川) 기생 아이로되 칠거학문 들어 있고, 진주(晉州) 기생 논개는 우리 나라 충렬로서 충렬문에 모셔 놓고 천추 향사(享祀)하여 있고, 청주(淸州) 기생 화월(花月)이는 삼층각에 올라 있고, 평양(平壤) 기생 월선(月仙)이도 충렬문에 들어 있고, 안동(安東) 기생 일지홍(一支紅)은 생열녀문 지은 후에 정경(貞敬) 가자(加資) 있사오나 기생 해폐 마옵소서.(춘향전, 96면.)

짐이 불명하여 공신을 저버린 바 되었으니 그대의 일장 표문(表文)으로 공식을 신원하고 안기의 죄를 다스려 국정을 바르게 하니 이는 충이요, 사생을 불고하고 가부를 신원하니 이는 열이라. 충렬(忠烈)이 쌍전하기로 충렬을 봉하고 가자(加資)를 주노라.(국문활자본, 112면.)

이상으로 국문활자본과 「춘향전」의 관련 양상을 살펴보았다. 「춘향전」의 삼각관계는 「동선기」와 흡사하며, 기타 내용들도 국문본 「동선기」가 「춘향전」을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국문본 「동선기」의 서사적 특징

여기에서는 앞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문본에 관한 서사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전기소설은 원래 사대부 지식층들의 꿈과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기소설에 관한 독자층들도 중요하다. 흔히 독자층의 신분을 4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 상층남성, 상층여성, 하층남성, 하층여성이다. 상층남성의 경우는 한문과 국문으로 쓰여진 소설을 보편적으로 모두 다 해독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많지는 않지만 상층여성도 한문본을 해독할 수는 있었다.³⁵⁾ 그러나 하층남성과 하층여성 중에서는 한문소설을 능히 읽을 수 있는 자가 없다. 한문은 상층 지식인의 문자로서 하층민들이 배울 기회나 환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선기」의 한문본을 국문본과 견주어 봤을 때, 한문본에는 한문 수준이 깊은 전고나 화려한 수식어나 혹은 흔히 나타난 편지 왕래에 관한 내용 부분이 많이 존재했으나, 국문으로 번역한 과정 속에서는 대폭 삭제하였다. 그러므로 국문본에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앞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없어진다. 이는 당시에 한문본을 국문본으로 번역할 때, 자연스럽게 독자층의 바뀔을 예상하고 한문본에 존재한 문예적 취향과 관련된 부분을 대거 삭제한 결과라 생각이 된다.

그 밖에 독자층의 바뀔에 따라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한문본과 국문본의 결말 처리 방식의 차이이다. 한문본과 국문본에는 서문적과 삼생인연이 있지만 현세에 기녀 신분으로 태어나 사대부 서문적과 신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서문적의 신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혼인했던 것도 문제이다. 동선은 신분이 낮은 데다가 서문적이 이미 혼인했으므로, 그녀는 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서문적이 동선과 이별하고 고향으로 들어가 모친 최부인과 부인 유씨가 있는 본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두 사람의 신분 차이 때문이다.³⁶⁾

동선이 서문적을 간사에게 천거하기 위하여 곳곳으로 분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장 안기가 동선의 미색에 빠져 서문적을 모해하였으며, 동선을 얻기 위해 그를 강제로 압박하려고 하였다. 심지어 거절을 당한 후에, 동선을 옥에 갇히고 형벌을 가하였다. 여기까지는 서문적과 동선의 신분 차이를 표출하였다. 안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옥에 갇히고 여자 주인공이 수청을 거절하여 자살하거나 형벌을 당하면서 죽을 뻔함을 비극적 구성이

35) 엄태식, 앞의 논문, 44~46면.

36) 권도경, 앞의 논문, 55면.

보여준다.

한문본의 결말에서는 서문적과 동선이 천리 밖에 바다 속에 있는 도죽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마무리했다. 열린 결말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서문적과 동선이 죽었다는 것을 은밀히 말해준 것이다. 즉 한문본의 결말은 비극적인 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국문활자본에는 동선과 서문적이 여러 고난을 겪고 나서 서문적이 항주자사로 임하여 동선이 총렬부인으로 봉하고 인세에 수십 년에 행복하게 살았다가 나이가 되어 도죽산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이를 보면 매우 해피엔딩의 방식으로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문적의 신분이나, 동선의 신분이나 모두 인상된 것으로 설정하고, 더불어 둘이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특히 한문본의 경우에는 결말까지 가더라도 동선이 여전히 첩의 신분으로 유지되어 있다. 어찌면 한문본에서는 동선이 첩의 신분으로 인해 여러 환의 난관을 겪게 되고, 순조롭지 못하여 결국은 비극적 결말이 된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첩은 부인이 될 수 없기에 동선도 결국은 부인이 못 된 것이다. 그러나 국문본에서는 이러한 신분을 부인으로 바꾸어 결말까지 모두가 원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독자층인 하층민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어 만든 것이다.

이상의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문 전기소설의 국문본의 번역 과정에서 독자층이 바뀌었으니 전기소설에 관한 전고나 시처럼 문예 취향을 높은 문학을 대거 삭제되고 원래 비극적이었던 결말이 행복한 결말로 바뀌었다. 둘째,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각종 소설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여성 독자 및 하층 독자들을 염두에 둔 변개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국문본 「동선기」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우선 한문본을 바탕으로 하여 국문필사본과 국문활자본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문본 「동선기」의 서사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국문본 두 이본에 관한 서지와 경계를 살펴보고, 한문본을 바탕으로 비교하여 세 이본을 내용적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한문본이 선행 이본이고, 국문필사본은 한문본을 바탕으로 다시 번역하고 개작되는 이본임을 알 수 있었다. 국문필사본은 낙질본인데, 국문활자본은 국문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아 축약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국문활자본을 중심으로 번역과 개작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문본은 먼저 한문본을 바탕으로 다시 번역하고 개작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문활자본을 국문필사본에 비해 한문본과의 차이가 더 크고 국문필사본을 바탕으로 다시 축약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본과 국문본을 대비한 결과, 국문본 「동선기」의 개작자는 한문본에 실려 있는 전고 및 어휘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문본에서는 한문본의 전고나 어휘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번역되고 개작되었다.

국문본 「동선기」에서는 조선 후기 소설의 영향이 감지된다. 17세기 말에 창작된 「구운몽」과 18세기 무렵에 창작된 「춘향전」은 서사 전개, 인물 설정을 국문본 「동선기」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국문본 「동선기」에서는 설영, 경경, 동선 등 3인이 강남절색이라는 것은 「구운몽」의 계섬월, 만옥연, 적경홍이 청루삼절이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국문본 「동선기」에 도죽산에 관한 서술은 「구운몽」에 총남산에 관한 내용을 채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문적이 훈례를 치른 후에 유씨·소소저·동선에게 거처하는 장소는 각자 옥순각, 별운당, 침향각으로 설치하는 것도 「구운몽」의 내용을 취한 것이다. 한편 국문본 「동선기」에서는 경경이 소주자사에게 협박을 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춘향전」에서 춘향이 변학도에게 협박을 당하는 대목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문본 「동선기」에서는 경경이 ‘총불사이군(忠不事二君)이요 열불사이부(烈不事二夫)’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춘향전」에 춘향이 변학도에게 했던 말이다. 그리고 동선이 총렬부인으로 봉하는 내용도 「춘향전」을 참고한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국문본 「동선기」의 서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한문 전기소설의 국문본의 번역 과정에서 독자층이 바뀌어 전기소설에 관한 전고나 시처럼 문예 취향이 높은 대목이 대거 삭제되고 원래 비극적이었던 결말이 행복한 결말로 바뀌었다는 점. 둘째,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각종 소설의 내용을 참조하였는데, 이는 여성 독자 및 하층 독자들을 염두에 둔 변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자료

이종철 소장 국문필사본 「동선기」(국사편찬위원회, MF A 지수 275).

저서

- 김기동 · 전규태 편, 『동선기·배시황전·옥소기연』, 서문당, 1984.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김춘택, 『우리나라 고전소설사』, 한길사, 1993.
 김태준(박희병 교수),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5, 아세아문화사, 1976.
 소인호, 『한국 전기소설사 연구』, 집문당, 2005.
 소재영·민병삼·김호근, 『한국의 딱지본』, 범우사, 1996.
 엄태식, 「동선기 역주 및 전고 연구」, 월인, 2019.
 이석래 역, 『춘향전』, 종합출판 범우, 2009.
 정길수 역, 『구운몽』, 돌베개, 2017.

논문

- 권도경, 「동선기 연구」, 『이화어문논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000.
 김재수, 「동선기 연구 I」, 『한국언어문학』 33, 한국언어문학회, 1994.
 김재수, 「동선기 연구 II」, 『논문집』 35, 광주교육대학교, 1994.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6.
 문범두, 「동선기의 도교 사상적 연구」, 『한민족어문학』 15, 한민족어문학회, 1987.
 박현규, 「동선기의 이본실태와 사상구조」, 『순천향어문논집』 6, 순천향어문학회,

2000.

- 소재연, 「동선기를 통해 본 17세기 소설의 변모양상」, 『어문논집』 3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6.
- 소재연, 「동선기 연구」,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 신상필, 「동선기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8.
- 양승민, 「동선기의 작품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2001.
- 엄태식, 「국문필사본 동선기 연구」, 『고전과 해석』 25,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 엄태식, 「조선 후기 전기소설 국문본의 종합적 고찰-문헌학적 특징 및 번역과 개작의 양상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9, 돈암어문학회, 2021.
- 여흔연, 「동선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8.
- 윤재민, 「동선기의 장르적 성격」,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정환국, 「동선기의 지향과 소설사적 의미」, 『대동한문학』 14, 대동한학회, 2001.
- 한의승, 「경북대본 동선기 해제 및 원문」, 『동방학』 2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